

한인뉴스

1

2011 VOL.175

haninnewsinni@gmail.com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Selamat Tahun Baru



친환경도자기 한국세라믹 대한민국 신기술 으뜸상

대상



2.7L

블레이드 퍼피 5.7L

친환경도자기 밀폐용기

1 깊은 맛

세계 명품도자기의 그 품질 그대로입니다!
독일 VILLEROY&BOCH, 미국 NIKASA, 영국 MAPKS & SPENCER, JOHN LEWIS, 스칸디나비아 ITTALA, 아일랜드 OSLAGH, LIMEGLARA, 일본 NARUMI 등을 생산 공급하는 대한민국이 그 품질 그대로 세계최대의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2 건강한 맛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 걱정이 없습니다!
Pb와 납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100% 무연유약을 사용하여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엘리프노미 Prop. 65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친환경도자기입니다.

3 살아있는 맛

원적외선(Bio)이 맛을 신선하게 지켜줍니다!
최첨단 신소재와 분자야나의 주원료인 Bone Ash 등 최고급 천연원료를 사용, 원적외선(Bio)이 방출되어 김치의 신선도를 4개월 지켜줍니다.

4 변함없는 맛

일반도자기 3배 강도로 단단합니다!
1250℃ 이상 고온에서 3번 구워낸 세계 최초의 신소재 초강자기로 일반도자기 3배의 강도를 지니 울 깨지지 않고 닦아내 색이褪지 않습니다.

도자기 밀폐김치용기 5.7L-22cmX21cmX22cm 3.6L-22cmX21cmX14cm 2.7L-22cmX21cmX11cm 2.3L-20cmX14cmX14cm



블레이드 퍼피 5.7L/3.6L/2.7L/2.3L



브리즈 [오렌지] 5.7L/3.6L/2.7L/2.3L

도자기 밀폐찬기



플로리스 직사각/정사각/원형



카멜리아 직사각/정사각/원형



남다른 생각의 스케일로 대한민국의 영역을 넓히고 계신 당신을 위해
대한항공도 생각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서비스의 생각, 네트워크의 생각,
편안함에 대한 생각 - 당신의 기대까지도 뛰어넘는 서비스로 더 크게 모시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우리는 더 크게 생각합니다

대한항공 자카르타 지점 : 021-521-2180

Garuda Orient Holidays

www.garudaholidays.kr

GOH 와 여행하기

국제선*국내선 항공권 발권서비스 및 전 세계 호텔예약 서비스



국제선 항공권

가루다항공, 대한항공, 싱가포르항공, 캐세이퍼시픽항공, 말레이시아 항공, 에바에어, 로얄타이항공, 일본항공, 차이나 에어라인, 전일항공, 콰타스항공, KLM 로얄 더치 항공, 에미레이트 항공, 루프트한자 항공, 에어프랑스, 스위스에어

국내선 항공권

가루다 항공, 라이언 에어, бата비아, 스리 위자야

“가루다 항공 자카르타 AIRTEL”

인천발 자카르타행 기내에서 이민국 심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편리해진 Garuda 항공 에어텔 프로그램

Resort	Room Type	2인 1실			1인 1실		
		항공 + 2박		1박추가	항공 + 2박		1박추가
		12/1~12/24 2/5~2/28	12/25~ 2/4		12/1~12/24 2/5~2/28	12/25~ 2/4	
IBIS Kemayoran ★★★	Standard	759,000	789,000	34,000	829,000	859,000	68,000
IBIS Arcadia ★★★	Standard	769,000	799,000	38,000	839,000	869,000	76,000
IBIS Slipi ★★★	Standard	769,000	799,000	41,000	849,000	879,000	81,000
Kartika Chandra ★★★	Standard	769,000	799,000	42,000	859,000	889,000	83,000
IBIS Mangga Dua ★★★★★	Superior	779,000	809,000	43,000	859,000	889,000	85,000
Mercure Rekso ★★★★★	Superior	799,000	829,000	43,000	879,000	919,000	85,000
IBIS Tamarin ★★★	Standard	799,000	829,000	45,000	889,000	919,000	90,000
Aston Marina ★★★★★	1 Bedroom	799,000	829,000	47,000	899,000	929,000	93,000
Le Meridien ★★★★★	Superior	829,000	859,000	58,000	949,000	979,000	115,000
Crowne Plaza ★★★★★	Deluxe	839,000	869,000	63,000	969,000	999,000	125,000
Gran Melia ★★★★★	Deluxe	879,000	919,000	85,000	1,059,000	1,089,000	170,000
Mulia Senayan ★★★★★	Splendor	959,000	989,000	122,000	1,219,000	1,249,000	244,000
Four Seasons ★★★★★	Superior	969,000	999,000	124,000	1,219,000	1,259,000	248,000
Ritz Carlton ★★★★★	Grand Room	999,000	1,029,000	140,000	1,289,000	1,319,000	279,000
Mandarin Oriental ★★★★★	Superior	999,000	1,029,000	142,000	1,299,000	1,329,000	284,000
포함사항	인천-자카르타 왕복 항공권(7일 유효), 자카르타 GOH 호텔 2박 숙박 및 조식						
불 포함사항	항공 TAX, 현지 공항 이용료, 유류할증료 및 인도네시아 입국비자						

“인도네시아 주요 여행지 호텔”

	호텔*리조트	풀빌라*산장
발리	★★★★★ ★★★★ ★★★ Inter Continental, Conrad Westin, Nikko Bali, Melia Holiday Inn, Sanur Beach, Bali Kuta Resort & Convention	Kamuela Vilas Sminyak The Ahimsa
롱북	★★★★★ ★★★ Sheraton Senggigi Senggigi Beach Hotel Holiday Resort	Pool Villa Club The Santosa Vilas & Resort Puri Mas Boutique Resorts & Spa Qunci Villas
족자카르타	★★★★★ ★★★★ ★★★ Hyatt Regency, Melia, Sheraton Phoenix, Novotel, Satika, Plaza Puri Asri	
수라바야	★★★★★ ★★★★ JW Marriot, Shangri-La Plaza, Novotel, Somerset	Java Banana



문의 및 예약

다르마왕사 스퀘어 3층 55호

전화 : (021) 7278-0856/0859

이메일 : oh_kumju@primef.co.id / michelle.lee@primef.co.id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품질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동중 인도네시아는

- 1 20년간 축적된 기술로
포장용 비닐(Poly Bag) 및 프린트에 관한 완벽한 기술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과
친환경제품 생산을 위한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 3 Best Quality & Quick Delivery를 최우선으로 귀사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Head Office
(Jakarta)
T 62-21-525-2258
F 62-21-525-0141

Factory 1
(Curug-Tangerang)
T 62-21-598-7513,598-0152
F 62-21-598-0860

Factory 2 & Marketing Office
(KBN Cakung-Jakarta)
T 62-21-440-3926
F 62-21-440-3944

Marketing Office E-mail
dji_mkt@cbn.net.id
bhjangik@indosat.net.id
kendj@cbn.net.id

謹賀新年

한 해가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문턱에서 외환은행은 지난 43년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1967년 출범 이후, 국책은행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금융 위기에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선진 기법으로 대한민국 금융의 불을 밝혀온 43년이었습니다.

역사는 미래의 힘이기애-

외환은행의 스마트한 금융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2011년에도 더 스마트한 금융의 불이 켜질 것입니다
외환은행의 이름으로

SMART BANK

KEB



외도네시아한국외환은행





PT. INWHA INDONESIA

ENGINEERING & CONSTRUCTION

혁신과 창조의 정신으로 핵심 경쟁력을 가진 인도네시아 플랜트 전문 건설 기업
PT. INWHA INDONESIA

건설 사업 분야

발전 Plant, Oil & Gas Plant, Petro Chemical Plant

산업 설비 Plant, Fertilizer Plant

전문 건설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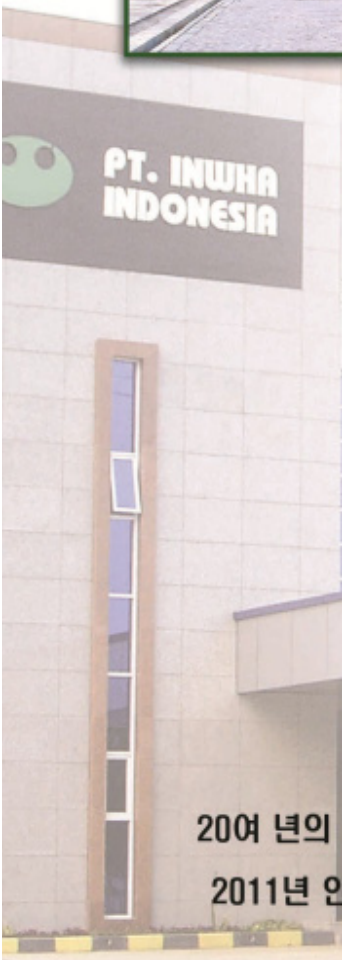
토목, 기계, 제작, 공조, 탱크, 배관 분야



2010년 시공 실적 :

- Chevron 정유 Plant 토목/기계/전기 공사 ✓
- Suralaya 660 MW x 1 발전소 토목/기계 공사 ✓
- Teluk Naga 315 MW x 3 발전소 토목 공사 ✓
- Cirebon 660 MW x 1 발전소 토목/기계 공사 ✓
- HESS Jambi Merang Oil & Gas Plant 기계/배관/Commissioning 공사 ✓
- Patra SK LBO Plant Turnaround 공사 ✓
- Pacitan 315 MW x 2 발전소 토목/기계 공사 ✓
- Tanjung Priok Combined Cycle Power Plant 기계 공사 ✓
- Muara Karang Combined Cycle Power Plant 기계 공사 ✓
- Muara Tawar Combined Cycle Power Plant 기계 공사 ✓

20여 년의 인도네시아 전문 플랜트 건설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한 핵심 경쟁력으로
2011년 인도네시아 플랜트 건설 시장의 선도 건설 기업으로 자리 매김 하겠습니다.



2011,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망이루소서!!!



생각나시는지요. 고향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느티나무, 천 년은 되었을 거라고 하는 그 나무가 그토록 오래 살 수 있는 이유는 속이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속을 비우면 강한 바람에 유연할 뿐 아니라, 공간을 새나 동물의 집으로 내주어 그 배설물로 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나무의 지혜인 것이지요.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그렇기 때문에 허는 오래도록 남아있지만 이빨은 강하여 부러지게 된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 그대로입니다.

신묘년, 토끼의 해입니다. 토끼는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호랑이를 물리치는 지혜로운 동물로 동서양의 우화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호랑이해 다음에 토끼해가 온 것일까요.

우리들의 새해도 것처럼 지혜로워서 모든 일이 순조롭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인뉴스 편집부 절 haninnewsinni@gmail.com

한눈에 서로 알아본
그 순간을
'첫만남'
이라고 써요

우연인 줄 알았어요

돌아가는 다른 길에서
거짓말처럼 또 만났을 때

내 안 깊은 곳을 흔들며
소용돌이치던 물소리,

당신도 들었나요?



소망을 담은 꽃 **봄구슬봉이**(용담과) 학명 : *Gentiana thunbergii*

꽃 말 : 기쁜 소식

전국의 산과 들 / 양지바른 습지 / 3~5월

두 해 살이 식물이며 높이는 5~15cm 내외로 매우 작다.

있는 등글게 땅에 붙어서 나며 몇 개의 꽃자루가 자라서 직경 1cm쯤 되는
조그마한 꽃이 피는데 연한 자주색 종모양이다. 위를 향해 피는 모습이 아름답다.

비슷한 종류로 구슬봉이와 큰구슬봉이가 있다.

신묘년 (辛卯年)의 토끼

우리는 경인년(庚寅年)의 백호를 떠나보내고
적도 이남의 남방 땅에서
신묘년(辛卯年)의 흰토끼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반세기 전에 이 땅을 밟았습니다
힘난한 한국 전쟁과 가난을 뒤로 하고
여기에 우리의 텃밭을 일군 것입니다

남들이 뭐랄까봐 조바심내며
우리는 뭐든지 씨 뿌리고 심었습니다
싹이 난 덴 물을 주고 거름도 줬습니다

가뭄이 닥칠 때면 그늘도 만들어 주고
홍수가 나는가 싶으면 물도랑부터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서로 도우며
숨 가쁜 토끼처럼 여기까지 달려 온 것입니다

잠시 언덕에 올라 지난해를 뒤돌아보니
백령도의 천안함은 두동강 나고
연평도의 조기, 꽃게는 풍비박산을 맞았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지 누굴 탓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린 G20을 넘어 세계 속의 세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세계 정상에 우뚝 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소망과 각오를 안고 험토끼의 해를 열며 기원합니다

너의 크고 꿰뚫한 두 귀는
내가 만들어 놓았던 나만의 울타리 장벽을 넘게 하시고
이웃의 어려움을 쉽게 듣게 하소서

너의 빠르고 튼튼한 두 다리로는
세계 속의 중심으로 빠르게 도착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지칠 줄 모르는 원동력으로 삼아 주소서

너의 보드랍고 포근한 털로는
가난에 지치고 곤한 이웃을 무엇보다 따뜻하게 감싸 주시고
외롭고 쓸쓸한 이들의 마음을 위로 하소서

정말 우리의 이웃에 인색하지 않으며 풍족하고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자카르타, 2011년 신년벽두

린두알람, 한 상 재

재인니한인문인협회장 한 상 재 -----

- 인천 강화 출생,
- 디지털조선 '인도네시아의 자연이 그리워' 블로그 & 카페 운영
- KBS & MBC TV & Radio 통신원, KTV 인도네시아 뉴스 해설



다시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 을 생각합시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 승은호

한인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0년은 국내외적으로 글자 그대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조국인 대한민국과 우리가 품담고 있는 이곳 인도네시아 양국 간에, 교류와 연대를 위한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교 분야에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의 동북아 중심의 외교를 넘어서서 동남아시아와의 협력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아세안의 중심국가인 인도네시아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시기에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우리 한인회 회원들의 역할 또한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한인회 회원들이 활동하는 각각의 현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않되 늘 겸손한 자세로 상대를 존중하여 따뜻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제 분야에서의 양국의 교류와 협력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한인회 회원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합니다. 특히 지난해 연말에 열린 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의 유도요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 계획 중 교통, 인프라, 그린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한국이 주(主) 파트너가 돼 달라”고 공식 요청함으로써 양국 간에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보다 활발하게 추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교역 규모가 2010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200억 달러에 육박하였는데 머지않은 장래에 500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장밋빛 전망에 그치지 않고 실효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는 이곳 현지의 문화와 경제 환경에 이미 익숙한 우리 재인니한인회 회원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 또한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한인회 회원들 모두에게 2011년이 희망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한인회 회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묘년(辛卯年) 새해 아침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한인사회를 위하여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김 호 영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인 여러분 !

희망찬 201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토끼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국운이 더욱 융성해지고, 인도네시아 한인 여러분들 모두에게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어느 때 보다는 더 다사다난했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우리나라는 세계 중심국가의 일원으로 발전하였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도 세계 7위의 수출대국의 위업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국위가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본국과 해외에 계신 한인 모두가 각자의 본분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이곳 인도네시아에 살고 계신 한인 여러분들 역시 최선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인사회의 위상이 어느 때보다 더욱 높아졌다고 자부합니다. 교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포스코, 롯데, 한국타이어 등 우리 대표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은 물론 우리 한인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한인 여러분!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금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 짐 오닐회장은 BRICs 뿐만 아니라 한국, 인도네시아 등을 금년도 세계경제를 이끌 ‘성장국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말 발리에서 열렸던 한-인니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듯이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발전의 주 파트너로서 보다 많은 역할과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긍정적 경제상황 하에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는 앞으로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계기를 맞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발전의 뒀안길에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사회 중 우리 한인사회가 가장 큰 커뮤니티라는 위상에 걸맞게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한인사회”, “나눔이 있는 한인사회”, “현지에서 존경받는 한인사회”가 되도록 교민 여러분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이 절실히 필요한 요즘, 인도네시아 한인사회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단결하여 가장 모범적인 해외 한인사회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한인여러분!

지난 한 해 저를 포함한 대사관 직원들이 나름대로 소임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해주신 한인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우리의 국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분발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한인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며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표지설명 ▶▶▶

새해 소망을 높이 띄워 올렸습니다.
가정의 평화와 건강을 기원합니다.

표지그림 : Diki Satria Nugraha

- 8 새해인사
- 9 산과 들에 피는 꽃 - 한국의 야생화
- 10 신년축시 - 신묘년의 토끼 <시, 한상재>
- 12 신년사 <승은호 한인회장>
- 다시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생각합니다
- 13 신년사 <김효영 주인니대사>
-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한인사회를 위하여
- 16 차 한 잔 마시며 <김문환 논설위원>
- 공공성과 공익성
- 18 신년특집 1 - 연
- 20 신년특집 2 - 율놀이
- 22 인터뷰 - 황의상 PT. INWHA INDONESIA 사장
- 24 2010 한인회 자선 송년의 밤
- 28 2010 한인회 자선 송년의 밤 찬조 리스트
- 30 2010 한인회 자선 송년의 밤 행사후원사

안녕하십니까. 2011년, <한인뉴스> 신년호부터 편집을 맡게 된 박정자입니다.

잡지편집은 해야할 일이 참 많은 분야입니다. <한인뉴스>를 편집하며,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잡지가 아님을 새삼스럽게 다시 느낍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한인뉴스 신년특대호>를 출간할 수 있었습니다. 보람을 느끼며, 편집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독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무겁지 않게, 가볍지도 않게,
모든 분들이 읽고 싶어 하는 <한인뉴스>를 만들기 위해 깊이 생각하고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메일이 변경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5.1070.3065 박정자



- 31 이모저모, 한인사회
 - 제3회 루시플라워 회원전
 - 탐방 · 루시플라워회
 - 문화탐방기 <직스 11학년, 김진주>
그의 그림 속에서 환하게 빛나던 노란색
 - 사진이야기, 제2회 불우이웃돕기 사진전
 - 재인니문인협회 제2회 시낭송회, 가을우체국
 - 제6회 자필목연전, 망리투한<분주 속에 흥친 여유>
 - 한·인니 미술교류전, 아름다운 소통
 - 2010년 한인색소폰동호회 송년콘서트
 - 굿네이버스 인도네시아
 - 인니옴부즈만
 - 따뜻한 온정, 불우이웃돕기
 - 시사회 '오랑꼬레아의 아리랑'
- 46 2010 중부자바 송년의 밤
- 48 학교소식 - JIKS
- 50 학교소식 - JIS
- 52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 김성월
- 55 인도네시아법률 해설 - 이승민
- 59 이병수와 함께 하는 보험교실 - 이병수

- 62 드라마에서 퍼 올린 바하사 - 허영순
- 64 시사 인도네시아 - 신성철
- 66 와칭! 코리아 - 서정제
- 69 대사관 임시청사 안내
- 70 재외선거 안내
- 71 동포안내문
 - 한인동포자녀 무료 건강검진
 - 출국세 제도 폐지 안내
 - 인니 테러 정세 관련 안내
- 72 이달의 시 - 바람의 편지 <시, 박경자>
- 73 제1회 인도네시아이야기 인터넷 공모전 당선작
 - 야자수 <일반부 우수작, 김명숙>
- 76 독자기고
 - 분주함 속에서 여유를 훑치기까지 <김선영>
- 77 열린 강좌 안내 - 한·인니 문화원
- 78 한인회 도서관 이용안내
- 79 한인회 특별활동 및 강좌 안내
- 80 공지사항
- 82 활동 단체 소개
- 85 생활정보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승은호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박정자 / 편집위원 : 김재민, 김은미, 최양기, 정무송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공공성과 공익성



김 문 환/논설위원

1964년 코트라(KOTRA) 자카르타 사무소가 개설되고 1965년 10월 수카르노의 좌익편향 정권이 붕괴된 직후인 1960년대 말부터 한국의 산림개발업체들이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동원하여 이곳에 진출하자 우선 노무관리 및 대 관청업무 등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어 능통자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실제로 언어소통의 문제와 현지관습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초창기 기업들이 많은 애로와 낭패를 겪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964년 한국의 모 대학에 최초로 개설된 말레이, 인도네시아어학과 제1기 졸업생들이 군복무까지 마치고 1971년이 되어서야 현지에 배치를 받아, 이들은 열심히 관련법규나 규정을 정비하여 회사의 일상업무에 원활유를 주유하는 한편, 회사의 구성원들을 생소한 이곳의 문화에 적응시키는 길잡이 역할을 해나간다.

1980년대에 들어 한국의 일부 대학 동남아관련 학과나 사회과학계열 학과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 극소수의 교환교수들이 파견되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같은 권위 있는 연구기관과 교류하며 학술지지를 발간하기도 하였으나 교민사회의 팽창과 더불어 양국간의 교류가 활발해진 지금은 석,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 이곳에 체류하는 연구자들

을 여기저기서 쉽게 마주치게 된다. 한발 더 나아가 인도네시아와 조금이라도 인연의 끈을 맺고 있는 한국의 몇몇 대기업들은 부속연구소를 활용하거나, 또는 현지연수와 같은 형식으로 인도네시아 전문인력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기도 하고, 아예 산학협동의 형식을 빌어 능동적인 정책을 펴는 기업들도 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의 무대가 점점 넓어지다 보니 한국의 방송작가, 극작가, 또는 소설가들마저 인도네시아를 그들의 작품소재로 삼는 빈도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연구대상지인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자생적인 ‘문화인프라’는 어떻게 구축되어 왔을까?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인사회의 규모는 일,이천여 명에 지나지 않아 교민골프대회가 있는 날이면 대부분의 한인골퍼들이 참가하여 서로 교류하는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연말이 되어 송년회라도 열리게 되면 가뭇 수브로또에 위치한 대사관 뒤뜰에 교민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들어 장기자랑과 행운권추첨으로 밤 12시가 다 되도록 시간가는 줄을 몰라했다. 한울타리에서 사는 듯한 교민들은 동족의식이 충만되어 식당, 골프장이나 공공장소에서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모두 이웃사촌이 되어 반가움을 표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한인사회의 소통수단은 이때까지만 해도 직접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하고 소식을 나누는 형태였으니 교민들을 횡적으로 연결하는 매체의 필요성보다는 고국소식에 목말라하며 2~3일에 한번씩 배달되

는 일간지나 ‘선데이 서울’ 같은 주간지를 기다리는 정도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노동집약산업이 밀려오면서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갑자기 폭증하는 교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국의 소식도 중요하지만 행동반경이 점점 더 확대되는 한인사회의 소식이나 사업과 관련된 정보취득에 대한 욕구였다. 이때부터 진출기업들은 현지전문가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들을 자체적으로 양성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한인사회 내에서는 자생적으로 이러한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 교민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는 간행물이 등장하게 되었으니 ‘교민세계’가 그 효시가 아닌가 싶다. 이후 이와 유사한 한인 잡지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1996년 7월에는 ‘재인도네시아한인회’가 발간하는 ‘한인뉴스’지가 월간으로 창간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한 타임즈’라는 일간지가 유가지 형태로 시험대에 올려졌으나 단명으로 끝나고 말았고 이에 대한 공백이라도 메울 듯 ‘한나프레스’가 현재 교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한인회의 정론지로 자부하는 ‘한인뉴스’ 지도 처음 창간되었을 때에는 이것이 잡지인가 싶을 정도로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수많은 탈자, 오자는 물론이고 정제되지 않는 편집의도 등 말그대로 ‘예의 없이’ 한인사회의 문을 두드리는 격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독자들로부터 무언의 채찍을 받는 사이 이 잡지는 어느새 환골탈태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되어 지금은 세계 어느

교민잡지와도 견줄 수 있는 우수한 잡지로 자타의 공인을 받고 있다.

지금 한인사회에는 한인들의 의사표출과 정보습득에 대한 갈증을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매체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전하는 내용들을 접하다 보면 종종 짜증스러운 경우가 발생한다. 기본적인 맞춤법이나 철자법을 지키지 못한 채, 호칭, 지명에 대한 번역상의 난맥상, 낱짜와 연도가 맞지 않은 검증 없는 기록사항 등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에 관해 다소 식견을 갖춘 독자들에게겐 불평을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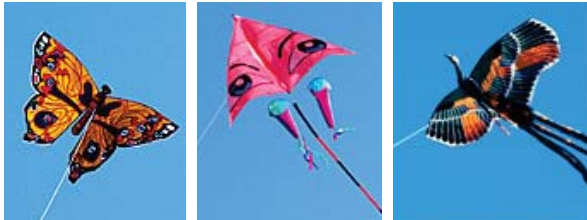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한인회 차원에서 우리 한인들이 자주 접하거나 사용하는 인도네시아어 용어, 인명, 기관명, 지명, 호칭 등에 대한 통일된 교범(Handbook)이라도 제정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동시에 간행물을 발행하는 주체들은 한번쯤 자신을 되돌아보며 언론의 ‘공익성과 공공성’의 의미를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전횡에 빠지거나 앓았는지? 어떻게 넘어가겠지 하는 적당주의에 몰입되어 본의 아니게 현실을 호도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앓았었는지? 인적, 재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핑계만이 ‘공공성과 공익성’의 의무를 덮어 버릴 수는 없다는 사실은 이미 공론화된 사회적 합의사항(Consensus)임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년특집 1 2011년, 희망과 건강이 넘치는 축복의 해가 되소서!

액을 멀리하고 복을 기원하는 연날리기

우리나라 연은 대부분 전시에 사용되다가 민간에 퍼지면서 액을 몰아내고 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기에 이르렀다. 연날리기는 정초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새해 소망을 하늘 높이 띄워 올리며 복된 새해를 기원하는 우리나라 세시풍습의 하나다.



연의 유래

우리나라의 연은 1,300여년의 전통을 자랑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진덕여왕 원년(서기647년)에 김유신 장군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연을 사용하였으며, <동국세시기>는 고려의 명장 최영 장군이(서기 1351년) 탐라(지금의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던 몽고인들의 반란을 정벌할 때 연을 사용하여 성안을 정찰하고 갈대 씨를 뿌린 후에 갈대가 무성하게 자란 후 불을 질러 섬을 점령하였다고 전한다. 또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충무공전술비연을 제작하여 섬과 섬, 섬과 육지에서 통신이나 암호, 전술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고, 그 후, 영조대왕 때(1724년)에는 궁에서 청·홍으로 편을 나누어 연을 날렸다고 한다. 또한 동네마다 백성들의 화합을 위해 연날리기를 적극 장려하였으며, 농한기 때인 음력 12월부터 연날리기를 시작하여, 그 절정인 정월 대보름날에 ‘액막이연’을 날려 보내는 것으로 풍년과 안녕을 기원했다.



이순신 장군의 신호연

현재 총 28가지, 55종의 문양과 그 뜻이 전해오고 있는 충무공의 전술비연은 각각의 문양마다 다른 암호를 넣어 작전명령 전달을 위해 쓰였다. 예를 들어 삼봉산 문양이 있는 [삼봉산연]을 띄우면 ‘흩어져 있는 군선과 군사들은 삼봉산 앞바다로 집결하라’는 뜻이 된다. 또 삼각형 모양을 2층으로 크게 그려 넣은 [기바리연]이 올라가면 ‘백병전으로 왜적과 싸우라’는 뜻이며, [돌쪽바지기연]을 올리면 ‘병참이나 병기의 보급’을 알리는 뜻이 된다. 특이하게도 ‘후퇴’라는 명령의 신호가 없었다고 한다.

연의 종류

우리나라 연은 형태와 문양에 따라 분류되어 그 종류가 100여종에 이른다. 형태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전통연의 99%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각장방형의 ‘방패연’ 과 어린이들이 주로 많이 날리는 꼬리 달린 ‘가오리연’, 그리고 사람, 동물 등 제작자의 창의성에 의해 입체감 있게 만든 ‘창작연’ 등 3종류로 크게 나뉜다.

소망연 - 액막이연

연을 가장 많이 날리는 때가 바로 설날에서부터 정월 대보름까지인데 특히, 보름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자기의 이름과 생년월일시를 써서 하늘 높이 날린 후에 연줄을 끊어 하늘 끝까지 한없이 날아가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것은 바로 그 해에 자기에게 다가올 액운을 연과 함께 날려버림으로써 무병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다는 풍속으로서 이것을 ‘송액’ 또는 ‘액막이연’ 이라고 불렀다.

얼레

얼레는 지방에 따라 ‘자세’ 또는 ‘감개’ 라고도 한다. 나무오리로 네 기둥을 맞추고 가운데 자루를 박아 실을 감아 연을 날리는 기구로 네모, 육모, 팔모얼레가 사용되는데 경기용으로는 육모, 팔모얼레가 주로 사용된다. 지방에 따라 2칸, 3칸, 4칸으로 만들며, 손잡이도 2개에서 4개, 6개 다양하다. 연의 크기에 따라 크기도 차이가 있다.

연실

70년대까지는 무명실이나 명주실에 풀(참쌀풀, 쌀밥)을 묻힌 후에 유리가루를 얇게 입혔다. 연줄은 부레뜸이나 풀뜸을 하는데 이것은 생선의 부레 또는 풀을 끓인 물에 사기가루나 유리가루를 타서 입히는 것을 말한다. 80년대 들어와서는 동호인들도 늘어나서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실의 개발로 그 종류가 다양해졌으며, 풀은 화공약품으로, 유리가루는 광석가루로 대체되고 있다.

〈참고, 문화원형백과사전〉



재미있는 연 이야기

정월 대보름이 지나 연날리는 사람들과
왜 “백정” 이라 했을까?

1724년 영조대왕 때, 연은 궁 안에서만 할 수 있는 놀이였다. 어느 날, 삼정승 육판서가 모두 모여 연줄 끊기 시합을 하다가 한 사람의 연이 궁 밖의 밭으로 떨어졌다. 밭을 갈던 농부가 그 연을 발견하고, 연이란 것은 궁 안의 정승들이 날리는 것이기에 돌려주려고 궁으로 찾아갔다.

농부를 본 정승은 “이 연은 나에게 필요치 않으니 자네가 가지고 가서 날리도록 하게나!” 하였다. 연에 오물이 묻어 있기 때문이었다. 농부는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와 연에 묻은 오물을 깨끗이 닦고 하늘에 띄어보니 꽤나 재미있었다.

그러자 농부는 친구들과 함께 똑같은 연을 만들어 날려보게 되었다. 연날리기는 정말 신나고 즐거운 놀이여서 모두가 좋아하게 되었고, 마을사람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연날리는 재미에 취해 농사는 갈수록 엉망이 되어갔다.

그 모습을 본 정승이 “아! 큰일일세. 백성들이 농사 일은 게을리하고 연만 날리니 이 일을 어찌할꼬!” 하고 한숨을 내쉬며 걱정하던 끝에 이 사실을 왕에게 아뢰게 되었고, 이에 왕은 정승들과 판서들을 불러 모아 회의록 하였다.

“정월 대보름이 지나서 연을 띄우는 자는 ‘백정’ 이라 칭한다고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한 정승이 의견을 내놓자, 왕은 “참 좋은 생각이구나!” 하고 기뻐하시며 다음날 바로 밭을 불이도록 이르렀다.

그때는 백정이라는 호칭이 붙은 사람은 인간 이하의 천대를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밭을 불인 후로는 정월 대보름 이후에 연날리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겨도 좋고 저도 좋은 신명나는 한 판! 윷놀이



옛 사람들은 설을 앞두고 겨우내 윷놀이를 즐겼다. 얼씨구~ 절씨구~ 이겨도 좋고 저도 좋은! 신명나는 한 판! 설날엔 윷놀이를 하며 신명나게 새해를 맞이하였고, 대개 보름까지 이어졌다.

윷놀이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편을 갈라, 윷가락이 떨어졌을 때 나오는 대로 행마(行馬)하여 먼저 네 개의 윷말(낙동)을 빼는 쪽이 이기는 놀이이다.

윷놀이는 한자로 척사(擲柶) 또는 사희(柶戲)라고 하는데, 나무 네 조각이란 뜻을 따서 사(柶)로 적었다. 윷놀이는 우리의 고유놀이이다. 중국에도 저포(樗蒲), 격양희(擊壤戲)가 있고 만주와 몽골에도 비슷한 놀이가 있으나 그 방식도 다르고 널리 유행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한자로 '사도(柶圖)'라 쓰기도 하는 윷판은 전체의 모양이 '밭전(田)'자 형이고 쌍방이 각각 말 4개를 가지고 승부를 겨루므로 '말판' 또는 '말밭(馬田)'이라고 한다. 양편 중에 말 4개가 모두 첫 밭인 '도'에서 출발하여 끝 밭을 먼저 빠져 나가는 편이 이기는 것이다. 놀이풍속에 4말을 빼는 것을 '낙동 빼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말을 '동'이라고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윷놀이는 윷을 잘 던지기만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말판을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승리의 관건이다. 남의 말에 잡히지 않으면서 가장 가까운 길로 가되, 자기 말끼리 덧놓아 '두동산이(두동문이)'나 '석동산이(석동문이)', 말게는 '낙동산이'를 만들어 한 번에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매우 빨리 날 수 있는 것이다.

윷판은 선과 29개의 검은 점을 찍어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점 대신 다른 모양이나 내용을 적어 놓기도 한다. 바깥둘레가 네모진(方) 것은 하늘의 운기(運氣)가 땅에서 이루어짐을 상징한 것, 즉 천지음양의 합일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29개의 점 중, 가운데 한 점은 북극성(樞星)이고 둘레의 28점은 28수(宿)를 의미한다.

윷놀이의 기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주장이 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부여의 지배체제였던 마가(馬加), 우가(牛加), 저가(猪加), 구가(狗加)를 상기시키며 윷놀이의 기원을 고대 부여에 두었다. 즉 윷의 도는 돼지의 저가, 개는 구가, 윷은 우가, 모는 마가를 표시하고 걸은 왕의 자리인 기내(畿內)의 벼슬아치(양을 상징)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부여에서 기원한 윷놀이가 차츰 고구려, 백제, 신라로 전해졌으리라는 견해다.

또한 조선 중기의 문인 김문표(金文豹)는 사도설(柶圖說)에서 윷판의 전체 주변이 둥근 것은 하늘, 중심에 십자를 그려 모나게 그린 것은 땅을 나타낸다고 했다. 곧 천원지방(天元地方)의 천문사상을 표현한다고 본 것이다. 그는 하늘의 별과 해의 변화에 따라 땅의 계절 변화가 생기므로 말의 진행이 해와 절기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당시에는 이 원리에 따라 28수의 별자리를 배치하여 자연스레 별자리 이름을 익히게 되는 교육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다.



조 선시대에는 별자리를 배치한 옷판과는 다른 옷판도 있었다. 종정도(從政圖) 또는 승경도(陞卿圖)라고 부르는 이 도판은 큼직한 종이에 종9품부터 영의정까지 내직이든 외직이든 모든 관직의 이름을 써놓았다. 곧 참봉, 만호 같은 하위직에서 판서, 대제학, 병사, 수사 등 고위직을 망라하여 문관, 무관을 구별치 않고 적은 것이다.

처음 출발할 때 도나 개가 나오면 좋지 않은 벼슬을 받게 되며 옷이나 모가 나오면 좋은 자리를 받는다. 그러나 벼슬 살이를 계속하는 동안 좋은 말밭을 걷게 되면 고속 승진이 보장되어 현관의 자리를 누리게 된다. 하지만 나쁜 말밭을 걷게 되면 유배를 가기도 하고 파직을 당하기도 하면서 낙백의 길을 걷게 된다. 또 낮은 등급으로 강등되기도 한다. 심지어는 사약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기도 한다. 젊은이들은 이 종정도로 옷놀이를 벌이면서 관직을 외우고 관직 생활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수양의 정신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다.

옷 놀이는 단순한 승부를 겨루는 유희로만 진행된 것이 아니다. 농경사회에서 한 해의 농사와 신수를 점치는 예언적 의미로 변용되기도 했으며 어른들이 집안의 아이들이나 세배를 하러 오는 아이들에게 그 해에 아무 탈 없이 잘 지내라는 뜻으로 옷으로 점을 쳐주기도 하였다.

농사와 관련지어 점을 치는 방법으로는, 산농(山農) 수향



(水鄉)이라는 것이 있다. 화전농과 수전농이 패를 갈라 승부를 겨루어 산농이 이길 경우, 그 해에 비가 많이 내려 수량은 오히려 수확이 줄어들거나 산농은 농사짓기가 유리할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승부가 결정되면 이긴 편은 승리를 기뻐하고 패자를 위로하는 술과 음식을 내어 함께 즐기며 친목의 터전을 다지기도 했다.



이와 달리 신상에 관련된 일을 점치는 방법은 옷가락을 던져서 주역의 64괘처럼 괘를 뽑아보는 것이다.

그 내용이 유득공(柳得恭)이 지은 《경도잡지(京都雜志)》에 나오는데 세 개의 수를 기본으로 하여 도는 1, 개는 2, 걸은 3, 옷과 모는 4로 정해진다. 세 번 모두 도가 나오면 그 숫자는 111이 되며, 도, 개, 걸이 나오면 123, 걸이 세 번 나오면 333, 모가 세 번 나오면 444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숫자로 간단한 운수를 맞추어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111괘 ; 아이가 자애로운 어머니를 만난다(兒見慈母)-좋은 운수를 뜻한다. 123괘 ; 깜깜한 밤에 촛불을 얻는다(昏夜得燭)-곤경에 처했다가 좋은 일을 만난다. 333괘 ; 나비가 꽃을 얻는다(胡蝶得花)-제철을 만난다. 444괘 ; 형마다 아우를 얻는다(兄弟得弟)-좋은 동조자를 얻는다.

좋은 운수만 있는 것은 아니다. 112괘 ; 쥐가 곳간에 들어간다(鼠入倉中)-재산이 축날 운수이다. 반대로 먹을거리가 풍부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213괘 ; 활이 깃털 화살을 잃는다(弓失羽箭)-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442괘 ; 고기가 낚시바늘을 삼켜버린다(魚吞釣鉤)-아주 곤궁한 일을 만나게 된다 등이 있다.

옷점은 나쁜 운수가 나오면 몸가짐을 생각하게 되고 좋은 운수가 나오면 기분 좋게 한 번 옷을 수 있다는 점에서 토정비결과 비슷하지만 보는 방법은 훨씬 간단하다. 인간의 길흉을 1년 단위로 예언해 삶에 재미를 준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참고, 문화원형백과사전〉

황의상 PT. INWHA INDONESIA 사장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부회장

“밑바닥부터 배우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



“밑바닥부터 배워야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젊은 인재들이 중소기업에도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건설 현장 소장에서 지금은 년 2억불 플랜트 건설 공사 수주를 실천하고 있는 PT. INWHA INDONESIA의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는 황의상 대표는 한국의 작은 건설 하청업체에서 그의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1992년 중소 건설 업체의 인도네시아 법인 현장 소장으로 발령 받은 것이 그가 인도네시아를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모두에게 힘들었던 IMF 구제 금융 시기, 한국에 있는 본사가 부도가 나면서 자연스럽게 현지에 남게 된 그는 그간의 경험으로 계속 일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한 것 보다는 그에게 있어 아는 곳이 여기 인도네시아 밖에 없고 한국에 가자니 더더욱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그는 인도네시아를 제 2의 고국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처음 혼자 남아 회사 운영을 시작할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국에 본사가 있을 때는 급할 때 기댈 곳이 있었는데 홀로 소규모 자본금으로 홀로서기를 시작하고나니 더더욱 외국에서 단돈 10달러가 새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조그만 공사를 할 때였습니다. 회사 직원들 급여날짜는 매월 10일 이었는데 매월 기성 수령일자가 20일경이었습니다. 매달 자금이 모자라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한국계 은행에 찾아



가서 도움도 청해봤고, 한국에 가서 친구에게 몇 만불 빌려서 갚으면 환율차이로 손해도 보고... . 그때 그 시기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 지금이 좋습니다.” 그는 그때 그 시절을 돌이켜 보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현재 PT. INWHA INDONESIA는 플랜트 전

문 건설 기업으로 현지 Power Plant, Oil & Gas Plant, 그리고 Process Industry Plant 건설 분야에서 한국인 경영체제 건설업체로써 그 위치를 탄탄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직원 252명에 현장 근로자 1500~3000여 명을 두고 현재 5개의 발전소 건설 현장과 3개의 Oil & Gas Plant 건설 현장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Cikande Serang 시에 위치한 5 Hectar 부지의 Shop에서는 3,000 ton press 설비와 400, 600, 800, 1,600 ton 크레인 설비를 갖추어 철골, 탱크, 파이프 설계 및 제작 작업을 지휘 관리하며 2011년 중반기 건설 시장의 선두주자로 그 역량을 다할 준비를 하고 있는 황의상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작은 업체에서 차근차근 배우면서 성장하였기에 성공한 관리자가 될 수 있었다고 그의 성공의 근본을 겸손하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는 생각이나 탁상공론 속에 빠져 있기 보다는 직접 몸으로 익힌 업무경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젊은 인재들의 보다 진취적인 그리고 도전적인 자세를 기대한다는 말을 전했다.

PT. INWHA INDONESIA는 한국인 경영체제 현지 건설업체로 외향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내향적 내실 및 관리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 한국인 건설업체로 건설업 면허허가 (SIUJK)에서 종합건설 분야 Grade 7을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난 해에는 미국계 정유화학 회사인 Chevron (전 Caltex)의 까다로운 입찰 절차를 통과, 7천만 불 공사 수주에 성공하면서 그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켜 주었다.



“해외에서 조국을 보면, 몽골인종 (Mongoloids) 가운데서 한국의 경제수준은 낮는데 우리 한국인들만 잘 산다고 믿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는 성공 확률이 낮은 IT에만 몰리고, TV 드라마도 실현 가능성 없는 신데렐라 신드롬만 부추기는 내용이 많습니다. 한탕주의식 생각에서 벗어나 노력한 만큼 성과가 얻어지는 곳에 열정을 쏟는 것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 감히 생각합니다.”

맨손으로 타국 인도네시아에서 중견기업을 일구어 한국인의 위상을 높인 황의상 대표이사와의 만남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미래를 키워가고 있는 우리의 젊은 인재들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열어주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2010년, 자카르타는 하루도 쉬지 않고 비가 내렸다. 그 비 덕분인지, 적도 근방인 이 나라에서 예년보다 덜 덥다는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련의 환경의 변화와 연계되어 아픔이라든가 상실이라는 감정마저 마비될 정도로 굵직한 사건사고가 많은 한 해였다. 자연재해, 지진과 화산폭발의 위험한 경고 속에서 인도네시아도 예외는 아니어서 강진과 쓰나미, 머라피 화산의 폭발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이 재해가 이어진 한 해였다. 자연환경의 변화는 비단 삶의 터전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조건,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사람들의 마음을 오그라들게 만들고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간다.

더욱이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천안함사건과 연평도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민족분쟁이라는 오랜 전쟁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끼는 비극 속에서 연말을 맞게 되었다.

그러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교민들과 함께 12월 14일, 자카르타의 물리아 호텔에서 송구영신의 자리를 마련했다.

1000여 명의 교민이 넓은 홀을 가득 메운 가운데, 승은호 한인회장은 머물러 있는 듯 흘러가버린 한 해

를 회고하면서 “G20 정상회의를 통하여 신아시아 외교를 모색하는 이때에 우리 교민들은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현지인과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제 곧 이곳 인도네시아에 제철소가 완공되면 한인 회원 수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고, 한인회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게 될 것이니 열린 가슴으로 포용력을 갖자”고 교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또한 김호영 한국대사는 “온갖 자연재해에 슬기롭게 대처한 교민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는 말과 “얼마 전 발리에서 있었던 한·인니 정상회담의 결과로 내년에는 많은 교민이 유입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현재 인니에서는 한인사회가 가장 큰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으니,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이 있는, 현지에서 존경 받는 한인사회로 발전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로 축사를 이었다.

한인회장과 대사의 축사에 이어 미처 참석하지 못한 피터 페닝(국제경제인총연합회장), 소피안 와난디(인니경제인협회장) 등 많은 유명인사들과 국내의 연예인들이 축하영상메시지를 보내와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발전과 결집된 힘을 높이 평가하며 2011년에도 변함없는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송년의 밤에서는 93년 창립 초기부터 현재

까지 PT Bosung Indonesia에서 생산관리, 자재 관리, QC, QA 업무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면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김기연 씨 등 12명이 모범교민 유공자표창을 받았다. 유공자 표창에 이어 각 지역별 한인회장단이 소개되고 2010년에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이 영상을 통해 흘러나왔다.

노예범씨가 사회를 본 1부 연말공식행사가 2부 연회 및 공연으로 이어지며 정성한(코미디언)씨가 사회자 바톤을 받았다.

부인회 회원들의 플룻/첼로/피아노 합주에 이어 자카르타어린이합창단의 깜찍한 크리스마스 캐롤 합창은 세모의 쓸쓸해지기 쉬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주기에 충분했다.

가수 샤이니가 우상이라는 인니의 젊은 가수들은 한국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 불렀다. 한류라는 말은 눈으로 보여지는 순간이었다. 송년의 밤은 인도네시아 색소폰의 대부라고 할 이일하 선생의 색소폰, 안영수와 김영희 씨의 크리스마스 캐롤, 김양선 씨의



노래로 이어지면서, 사이사이 경품추첨으로 떠들썩하면서, 참석한 사람들은 느긋하게 식사와 담소를 즐기는 분위기였다. 아르바이트 나왔다가 경품 TV를 타게 되었다는 젊은 여성의 환한 미소도 이번 자선송년의 밤에서 기억 될 장면이다.

신년 영상 메시지가 자막을 통해 흘러나왔다.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좀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모씨, “올해는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 2011년에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모양, “회사에 잘 적응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가족이 모두 건강





문성력
하나은행



한성철 - 다다



김국성
우리은행



이영구
스타컴텍스



황의석
인화



이승대
코린도그룹



사공경
문화연구회



정 권
대화



김기연 - 보성



김홍만
BAJU INDAH INDONESIA



오승현
KENLEE INDONESIA



신현만
ZAGO MOLD KERIASI

했으면” 하는 모씨 등..., “새해 소망은 행복입니다” 라고 한마디로 정리한 모씨 등의 소망이 어찌 그들만의 소망일까. 모두들 공감하며, 같은 소망으로 한 자리에 모여 새해 덕담을 나누는 모습이였다.

회사별로 모여 앉은 사람들, 단체 모임, 가족 모임, 모임의 형태는 다양각색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때 그 순간 가장 순수했을 것이다. 무언가를 떠나보내는 마음은 늘 그런 것이기에.

그러나 늘 그렇듯이 떠나보낸다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다시 맞는다는 말이다. 2010년이 가고 2011년이 오는 것이다. 어려운 일이 많았던 한 해였지만 지금 이렇게 가족과 친지, 친구들과 둘러앉아 송년의 밤을 보내고 있으니 꼭 나쁜 한 해였다고 구겨버릴 일은 아닌 듯 싶다. 늘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세상이 어렵기에 함께 있음이 더욱 소중한 송년의 밤이었다.

헤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손에 손을 잡고 ‘사랑으로’ 를 함창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아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 주리라 아아 영원히.....’ 2011년, 지금 잡은 이 손들이 더욱 견고해져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마음 깊이 새겨본다.

인니한인회 자선 송년의 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날아와 열창을 해 준 가수 김연숙 씨와 재치 있는 진행으로 시간가는 줄 모르게 붙들어 매주었던 사회자 노예범씨, 정성한 씨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많은 후원으로 행사를 꾸밈하게 도와준 후원자들과 개인성금 기탁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10년, 모두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0 한인회 자선 송년의 밤 찬조 리스트

번호	성명	회사명	상품명	수량
1	승은호	코린도 그룹	ICN-JKT왕복티켓(비즈니스)	1 대
2	강주석	SERIM INDONESIA	상품권	Rp.300만
3	강호성	ANUGRH CIPTA MOULD INDONESIA	Black Berry	1 대
4	구자성	일요신문	핸드폰	1 대
5	김경곤	SUKWANG INDONESIA	디지털 카메라	1 대
6	김남진	HAENG NAM SEJAHTERA IND.	Dinner Set	3 개
7	김두련	MIWON	청정원 선물 Set	5 개
8	김문호	DADA INDONESIA	핸드폰	1 대
9	김성대	SAMICK INDONESIA	일렉트로닉 기타	1 대
10		SAMICK INDONESIA	어쿠스틱 기타	2 대
11	김송정	UNICON INDO MESIN	LED TV 42"	1 대
12	김영만	KIPCO	상품권	Rp.200만
13	김영욱	GAYA INDAH KHARISMA	상품권	Rp.100만
14	김우재	OKTA	소형 덩채 냉장고	1 대
15	김원대	LG	LCD TV 42"	1 대
16		LG	핸드폰	1 대
17		LG	DVD	1 대
18	김재유	DONG SUNG JAKARTA	Black Berry	1 대
19	김종현	KOIN BUMI	상품권	Rp.300만
20	김준규	CIPTA ORION METAL	찬조금	Rp.100만
21	김흥기	BAJU INDAH INDONESIA	핸드폰	2 대
22	노예범	SAM PUTRA INTI	핸드폰	1 대
23	문영표	롯데 마트	LED TV 42"	1 대
24		롯데 마트	상품권	Rp.500만
25	배상경	JAMBI RESOURCES	디지털 카메라	1 대
26	서영울	PRATAMA ABADI	디지털 카메라	3 대
27	석웅치	DAYUP INDONESIA	상품권	Rp.300만
28	송창근	KMK Global Sports	LED TV 42"	1 대
29	안상영	DAEHWHA LEATHER LESTARI	디지털 카메라	1 대
30	이상일	UIB	상품권	Rp.200만
31	이지현	ZIMMOAH	디지털 카메라	1 대
32	이진호	JINYOUNG	상품권	Rp.100만
33		JINYOUNG	삼봉나와Set	2 개
34	이창훈	KIDECO JAYA AGUNG	LCD TV 46"	1 대
35		KIDECO JAYA AGUNG	Black Berry	2 대
36	이현상	ROYAL KORINDAH	PUTTING MAT	1 개
37	이호덕	ROYAL SUMATRA	WEDGE 56°	1 개
38	이호완	서울 메디칼 클리닉	종합 검진표(2백50만)	1 매
39	임만규	삼성 전자	LED TV 40"	1 대
40		삼성 전자	Galaxy tab	1 대
41	임만규	삼성 전자	홈서버	1 대
42		삼성 전자	3D 블루레이 플레이어	1 대
43		삼성 전자	MP3	1 대
44	김갑한	버카시 한인회	찬조금	RP. 500만
45	김우영	메단 한인회	찬조금	RP. 500만
46	김재훈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서랍장	3 개
47	오명택	바탐 한인회	디지털 카메라	1 대
48	임택선	수라바야 한인회	찬조금	RP. 300만
49		BOSUNG INDONESIA	i-Pad	1 대
50		POWERTECH INDONESIA	식사권 (Rp.10만)	1 대
51	양영연	Seafood Buffet "Piscator"	식사권 (Rp.10만)	15 매
52	전민식	CJ INDONESIA	CJ 선물 Set	20 개

번호	성명	회사명	상품명	수량
53	조규철	DONG JUNG	LG LCD TV 42"	1 대
54	조성국	LIG 손해보험	핸드폰	1 대
55	조용우	외환은행	디지털 카메라	1 대
56	조용준	SONERGY	핸드폰	1 대
57	조호신	SONERGY	핸드폰	1 대
58	진영휘	SK KERIS	찬조금	RP. 500만
59	장운수	가효	식사권 (Rp.10만)	20 배
60	차상만	Hankook Ceramic	도자기 Home set	3 개
61	최상학	우리은행	LCD TV 32" +Bracket	1 대
62	최재경	대한항공	ICN-JKT Economy	2 배
63	한현봉	보고르 한인회	찬조금	RP. 500만
64	현정규	MEKAR SAMMI JAYA	핸드폰	1 대
65	홍기호	AURORA INT' L CO.	핸드폰	1 대
66	황의상	INWHA INDONESIA	Galaxy Tab	1 대
67		가나	식사권 (Rp.50만)	3 배
68		가효	식사권 (Rp.50만)	4 배
69		고주몽	식사권 (Rp.50만)	4 배
70		김삿갓	식사권 (Rp.50만)	3 배
71		꽃과 좋은날	꽃다발/꽃바구니 (Rp.30만)	5 배
72		눈사랑 안경	이용권 (Rp.50만)	4 배
73		뉴서울 슈퍼	상품권	Rp.200만
74		대화	식사권 (Rp.20만)	10 배
75		라스베가스	양주	5 병
76		로템 투어	상품권	Rp.100만
77		로즈마리	1년 회원권	1 배
78		마포	식사권 (Rp.30만)	5 배
79		블루오션	1년 회원권	1 배
80		아시아 진주	남양 진주 펜던트(\$500)	1 개
81		엘가 스튜디오	가족 촬영권 (Rp.200만)	1 배
82		우먼 센스	파마 이용권	3 장
83		임 테일러	고급 양복	1 벌
84		임 테일러	고급 바틱	3 벌
85		조지안 피니처	이용권 (\$100)	3 배
86		토박	식사권 (Rp.50만)	3 배
87		하나 투어	JKT-ICN Economy	1 배
88		한솔	식사권 (Rp.50만)	6 배
89		한인 포스트 닷컴	JKT-ICN Economy 가루다	1 배
90		한인회 이사회	삼봉냐와 Set	2 set
91		휴	양주	15 병
92		City Seoul	식사권 (Rp.20만)	5 배
93		GARUDA INDONESIA	JKT-ICN Economy	1 배
94		GARUDA INDONESIA	덴파사-JKT Economy	1 배
95		HOTEL BOROBUDUR	주말 숙박권 (조식 포함)	1 배
96		HOTEL JW-MARRIOTT	주말 숙박권 (조식 포함)	1 배
97		HOTEL NIKKO JAKARTA	ORIGAMI RESTAURANT	1 배
98		HOTEL NIKKO JAKARTA	OLIVETREE RESTAURANT	1 배
99		HOTEL RITZ-CARLTON	주말 숙박권 (조식 포함)	1 배
100		JR Salon	사우나 이용권 (Rp.39만)	1 배
101		JR Salon	마사지 이용권 (Rp.55만)	1 배
102		Good Deal Garally	4단 협탁	2 개
103		HOTEL MULIA	주말 숙박권 (조식 포함)	2 배
104		JR Salon	사우나 이용권 (Rp.40만)	4 배
105		IMPERIAL GOLF	평일 골프이용권	4 배
106		JABABEKA GOLF	평일 골프이용권	4 배
107		GADING RAYA	평일 골프이용권	8 배
108		K-Mart	상품권	Rp.200만

2010 한인회 자선 송년의 밤 행사후원사

번호	성명	회사명	후원내역	금액
1	승은호	코린도 그룹	후원금	RP.1 억
2	이창훈	KIDECO JAYA AGUNG	후원금	Rp.5000만
3	송창근	KMK Global Sports	후원금	Rp.3000만
4		신발협의회	후원금	Rp.3000만
5		봉제협의회	후원금	RP.2000만
6		민주평통	후원금	Rp.1000만
7	조규철	DONG JUNG	후원금	Rp.2000만
8	신기엽	HANINDO EXPRESS	후원금	Rp.1000만
9	김주철	PT. STARCAMTEX	후원금	Rp.1000만
10	박동희	TRI KARYA ALAM	후원금	Rp.1000만
11	배도운	DOOSAN CIPTA BUSANA JAYA	후원금	Rp.1000만
12	이세호	땅그랑 한인회장	후원금	Rp.1000만
13	이지현	ZIMMOAH	후원금	Rp.1000만
14	이진수	SUNG BO JAYA	후원금	Rp.1000만
15	이호덕	ROYAL SUMATRA	후원금	Rp.1000만
16	조용우	외환 은행	후원금	Rp.1000만
17	최대호	동서 증권	후원금	Rp.1000만
18	최상학	우리 은행	후원금	\$2,000
19	최창식	하나 은행	후원금	Rp.1000만
20	황의상	INWHA INDONESIA	후원금	Rp.1000만
21		(주)진로	후원금	\$1,000
22		일요신문	홍보물 제작	
23		KBS WORLD	제작, 홍보 지원	
24		K-TV	홍보 지원	

〈2010 자선송년의 밤〉행사를 위해서 후원과 찬조에 협조해주신
교민 여러분과 기업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새해에도 평안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한인뉴스는 1996년 7월 15일 창간 이후 교민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해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1년부터는 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교민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교민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화 : 021-521-2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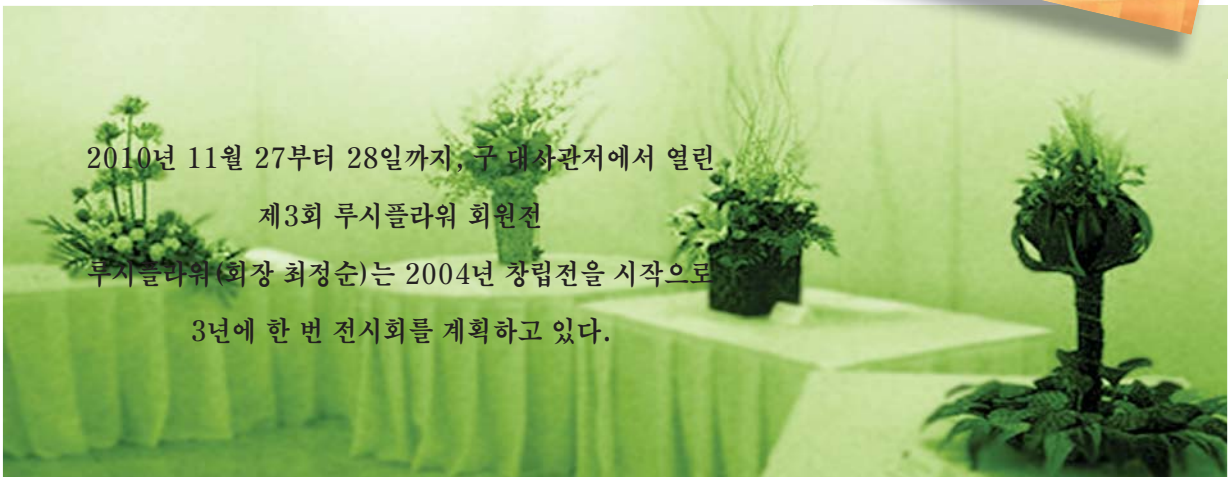
한인뉴스 발행인 승은호 배상



제3회 루시플라워 회원전

루시플라워

Rucy Flower



2010년 11월 27부터 28일까지, 구 대사관저에서 열린
제3회 루시플라워 회원전
루시플라워(회장 최정순)는 2004년 창립전을 시작으로
3년에 한 번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다.

탐방 · 루시플라워회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김춘수의 시, '꽃')

다만 하나의 몸짓으로 존재하는 꽃들을 엮어, 잊히지 않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루시플라워.

탐방약속을 했지만 수업과 창작에 방해가 될까봐 일부로 조금 늦게 도착한 최정순 회장 댁에는 벌써 몇 개의 새로운 작품이 탄생되어 있었다. 그 옆에서 아직 탄생을 기다리는 꽃작품들은 진지하게 그러나 무겁지 않게, 표정을 다듬고 있었다.

담백하게 꾸며진 꽃꽂이 하나를 본다. ‘교감’ 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다. 시나 그림이나 음악, 모든 창작품은 작가의 얼굴을 닮았다. 꽃꽂이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왜 이제야 느끼는 것일까. 어떤 작품은

아기자기하고, 어떤 작품은 정갈하고, 우렁차고 다소 꽃하다. 신이 자신의 모습을 본 따 사람을 만들었다는 경전의 말씀은 사실일 것이다.

최정순 회장과 잠시 얘기를 나눈다.

- 언제부터 꽃꽂이를 시작하셨나요?

저는 1983년에 꽃꽂이를 시작하여 86년부터 성당에서 제대꽃꽂이를 하면서 강습을 시작하여 25년 동안 두 가지 다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6년 동안 꽃꽂이를 계속하였고 싱가포르에서는 전시회도 한 번 가졌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2000년도에 와서 2004년에 루시플라워회 창립 전시회를 하였고 작년에는 3회 정기회원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 루시플라워는 널리 광고하지 않아도 자생적으로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회원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플라빠가딩과 땅그랑, 쪼브브르에 제자 4명이 지부를 운영하고 있고 전체 지부의 회원까지 합치면 루시플라워회 회원 수는 약 90여 명이 됩니다. 저희 중앙회에서는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3번 수업이 있습니다.

- 인도네시아는 꽃꽂이를 하는 환경으로써는 힘든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인도네시아에 처음 와서 동양꽃이를 하는데 재료에 대한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꽃을 구하기도 어렵고, 꽃꽂이를 하는 용기조차 아주 힘들게 구했습니다. 더욱이 동남아에서 일본의 동양꽃이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꽃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번은 구스투르 대통령궁에 초대받아 꽃꽂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부인께서는 몸이 불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시간이 넘는 꽃꽂이 과정을 지켜봐주셨습니다. 동양꽃이를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은 일념으로 동서양꽃



이에 대해 아주 열심히 설명과 시범을 보였던 일이 생각 납니다. 지금은 전에 비하면 꽃이나 용기 등 재료를 구하는 일이 초창기처럼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후조건이나 환경에 따른 제약은 여전히 많이 있지만요.

- 꽃꽂이를 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어떤 일이 가장 보람되시나요?

제자들이 사범자격증을 따서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볼 때, 전시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작품을 보는 것을 지켜보며 뿌듯해하는 회원들을 볼 때, 적응하기 환경에서 꽃꽂이를 통해 차츰 자신감을 찾아가는 회원들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강습비도 저렴하게, 매달 내는 것이 아니라 강습 횟수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이곳이 단지 꽃꽂이를 위해서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살아가는 이야기로 마음을 공감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진정한 사랑방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며 보람입니다.

-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꽃꽂이는 다른 전시회와는 달리 준비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전시기간에도 늘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전시회를 한 번 갖는다는 것이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3년에 한 번 열었던 정기전인데, 이제부터는 2년에 한 번 열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인회와 협조하여 취미활동반을 신설해서 더 많은 교민들과 꽃을 통한 만남과 나눔의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 꽃꽂이를 하기 위해서 타고난 미적 감각이 필요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꽃꽂이는 기본

적인 틀을 배우는 것만 해도 3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하나하나 틀을 배우고 완성하다 보면 어느새 실력을 갖추게 된 자신이 보일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꾸준히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정순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꽃꽂이를 배우는 것은 삶의 과정을 배워가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적당하게 가치를 쳐내야 하는 일이며, 꼭 맞는 용기에 얹히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 어울림이라는 것 하며... 그렇다, 이미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반복되는 몸짓들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주대하는 사람과 마주치는 사건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가 되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일게다.

그렇다면, 다만 하나의 몸짓의 불과한 꽃송이를 조화롭게 엮어서 의미를 부여하는 꽃꽂이야말로 우리들 삶의 모습과 가장 밀접한 행위 예술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루시플라워 최정순 회장
... 0811.834.026 ...
cafe.daum.net/rucyflower





그의 그림 속에서 환하게 빛나던 노란색

JIKS 11학년 김진주

Batik? 인도네시아 전통의상! 나의 이런 단순한 생각만으로는 바틱을 제대로 알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 바틱공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였다. 설명에 따르면 바틱은 내 생각과는 달리 특정한 옷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염색기술의 한 방법이라고 한다. 어디에나 응용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의 바틱 열풍이 끊이지 않는 것인가 보다. 바틱공장에서는 짚(Cap:도장)으로 천에 문양을 찍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시간에 쫓겨 서두를 법도 한데 천천히 신중하게 문양을 찍는 모습은 아주 인상 깊었다. 이곳에서의 시간의 흐름은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시계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었다. 바틱공장에서 만드는 과정을 배워 볼 수 있었다면 직물박물관에서는 더욱 화려한 바틱을 만나 볼 수 있었다. 어느 곳에서 만들어 졌는지에 따라 바틱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각각 네덜란드와 중국의 영향을 받은 바틱에선 확연한 차이가 느껴졌지만 두 바틱 모두 자연을 담고 있었다. 바틱만 보고도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바틱을 알아갈수록 자국의 전통을 지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보편화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노력과 바틱 자체의 예술성만보다도 어쩌면 유네스코에서 바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한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인니식 전통식사를 하기 위해 들어선 식당에서는 Padang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나로서는 노래와 춤이

무척이나 특이하게 느껴졌다. 특히 접시를 들고서 역동적으로 추던 춤은 신기하면서도 위험해 보여 보는 내내 스릴이 넘쳤다.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치고 향한 곳은 Cemara 갤러리였다. 입구에 선 순간 인도네시아가 아닌 다른 나라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건 나 혼자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갤러리에는 유럽풍의 가구와 액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곳에서는 특히 프랑스인 화가 살림의 그림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나조차도 그의 작품의 강렬한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그는 파랑과 노랑 등과 같이 서로 모순되어 어울리지 않는 두 색상을 선택하고 그 중간에 검정색의 선을 칠함으로써 색채의 완벽한 조화를 이끌어 냈다. 대체적으로 어두운 느낌을 주었던 그의 그림 속 희망을 나타내듯이 환하게 빛나던 노란색을 보면서 나 자신도 희망을 얻었다. 갤러리에서 그림을 감상했던 시간만큼은 나 나름대로 그림을 이해하고 감상하면서 큐레이터가 된 기분을 만끽할 수 있어서 좋았다. 오늘을 계기로 살림은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아마 기억에 남는 화가가 될 것 같다.

라라종그랑(LARA Djonggrang) 카페는 나를 두 번 놀라게 했다. 처음에는 카페 입구의 아주 큰 나무를 보고 놀랐고 두 번째는 카페 안 특색 있는 인테리어에 감탄했다. 카페 안은 중국풍의 분위기가 풍겼다. 흰색의 화려한 벽지 위의 그림을 보고 있자면 미술관에 온 듯한 착각이 들기도 했다. 여러 개의 방마다 각각의 테마가 정해져 있는 듯 했다. 특히 마릴린 먼로의 방은 다른 방들과는 달리



카페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연관성이 없는 듯해서 뜬금없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둘러보는 내내 재미있었다.

카페의 곳곳을 둘러보고 차도 마시면서 적당한 휴식을 취한 뒤 이슬람대사원 (Masjid Istiqial) 으로 향했다. 인도네시아에 무슬림이 많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사원은 무척이나 웅장했다. 사원 안으로 들어서 보니 구멍 뚫린 특이한 격자구조의 벽이 눈길을 끌었다. 벽을 이렇게 건축한 이유는 햇볕은 차단하고 바람만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사원이 5층인 이유는 하루 5차례의 기도과 5대 의무를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한다. 위의 두 가지 예 외에도 사원의 건축구조는 많은 의미를 갖는다. 궁금했지만 들어가 볼 기회가 없었던 곳을 구경하니 속이 다 시원했다. 사원에서 나오는 길에 이슬람대사원과 마주보며 서 있는 성당을 보면서 인도네시아가 종교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문화탐방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인도네시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어 너무 기쁘다. 오늘 만큼은 정말 아깝지 않을 만큼 시간을 알차게 쓴 기분이 든다. 이곳저곳 다니느라 몸은 피곤하지만 얻어가는 것이 많아 마음이 짝 찬 느낌이다. 인도네시아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해지는 것이 많아 앞으로도 문화탐방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서 얻은 문화가 주는 윤택함으로 일상생활이 더욱 활기차게 변화 될 것 같다.



7(Tues.) Dec. ~ 13(Mon.) Dec., 2010

JL. Prapanca Dalam No.6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옛 대사관저)

5:00 pm, 7(Tues.), December 2010

주최 : 재인니 대한민국 대사관

사진 이야기

PHOTO ESSAY

..... 행복한 미래를 향해 쏘다

지난 2010년 12월 7일 저녁 5시, 구 대사관저에 환하게 불이 밝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한인 사진협회(회장 김희중)에서 지난해에 개최한 제1회 불우이웃돕기 사진전시회 수익금으로 메단의 한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을 도와준 경험이 있으며, 이번 제2회 전시회작품 판매금액도 모두 불우시설에 기부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세모의 따뜻한 발걸음들이었다.

“이번 전시회의 수익금도 전부 불우이웃돕기에 쓸 것”이라며 나눔의 기대와 기쁨으로 충만한 김희중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최정순 루시플라워회장과 강희중 색소폰동우회장, 사공경 문화연구회장의 축하인사가 이번 전시회의 의미를 더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엄중한 전 회장이 “사진이라는 과거행위로 행복을 염원하는 미래를 위해 쓸 수 있어서 고마운 일이다”라는 마무리 인사로 큰 박수와 공감을 얻었다.

인터넷 사이트 인도웹에서 사진이야기를 나누던 동호인들이 만나 출사를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모임으로 이어졌다는 한인사진협회는 현재 전체 회원수가 70여 명이 넘을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와 참여도를 자랑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한 회원은 20여 명, 100점이 넘는 작품으로 프로사진작가의 사진보다 더 많은 빛깔의 이야기를 담아낸 멋진 사진들이었다. 빛과 시간과 감성의 조화로운 몇 초를 위하여 며칠씩 현장에서 밤을 새웠던가, 깊은 바닷속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스쿠버다이빙자격증을 땀다는 회원들의 열정은 그러나 아직 아마추어수준이라고 겸손하게 말한다.

‘사진이야기’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교민들에게 특별한 자격조건 없이 개방되어 있다.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나가는 출사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인도웹(www.indoweb.org)의 소모임에서도 만날 수 있다.



가을우체국에 오셔서 '내 마음의 편지'를 쓰세요



지난 11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다름마왕사에 위치한 한마음교회에서 재인니한인문인협회가 주관한 제2회 낭송회 '가을우체국' 이 교회 본관을 꽉 채운 청중을 모신 가운데 진행되었다.

재인니한인문인협회 한상재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낭송회는 삶의 자취를 되돌아보게 하는 감성적인 시와 음악이 어우러져 타국에서 '몸이 먼저 알고 있는 가을'을 차분하게 풀어내는 시간이었다.

신찬미, 김다빈의 피아노바이올린 협연으로 서막을 열어 문인협회 회원 김은숙, 이영숙, 박정자, 이승훈, 김성월, 손은희, 서미숙, 박경자, 사공경, 채인숙, 이상기 등 11명의 문인들이 자신의 창작시를 낭송하는 사이사이에 라뮤즈자카르타여성

합창단(지휘 이지영)과 열린교회 중고등부 오케스트라단의 선율이 아름다운 가을밤을 실내에 온통 덮어놓았다. 고조된 분위기는 직스의 선종복 교장의 시 낭송 '행복(유치환 시)', 직스 학생들의 특별출연, 출연진 전원의 가을노래 합창으로 이어졌다.

낭송회가 끝난 후 선종복 교장은 '앞으로 직스 안에서 학생들의 감성에 큰 도움이 될 이런 시낭송회가 열린다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우리 교민사회에 이렇게 멋진 행사가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런 행사가 없어지지 말고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가을분위기에 푹 젖어들었다가 깨어난 듯 상기된 표정을 짓던 참석자들의 표정에서 이번 재인니문인협회의 행사가 우리 교민사회에 끼치는 영향과 파급효과를 알 수 있었다.

문인협회 한상재 회장은, "많은 교민들이 와주셔서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며, 앞으로도 교민들과 한마음을 이루고,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 문학행사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늘 교민들과 함께하는 문인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묵향을 따라 묵향을 따라 . . . 분주 속에 흠친 여유

전시날자 : 2010년 12월 2 ~ 6 (Mon)

전시장소 : Gandaria City Mall, Main Street

자필묵연(회장 도념 제경중)이 지난 일 년 바쁜 시간 속에서 이루어낸 서예작품으로 <忙裏偷閒 ; 바쁠 땅, 속리, 흠칠투, 한가할한>, 분주 속에 흠친 여유를 펼쳐놓았다. 제6회 회원전이다.

묵향을 따라, 묵향을 따라, 전시장에 들어서니 인재 손인식 선생의 일가에서 단련된 서예작품 80여점이 저마다의 개성과 필체로 예와 오늘, 글쓴이와 읽는이의 마음에 교감의 다리를 놓는다.

“유구한 동양의 예술이자 한국의 심오한 전통예술인 필묵을 함께 즐기고 감성을 가꾸는 동호인 모임인 <자필묵연>은 우리 한인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는 김호영대사의 축사처럼 자필묵연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한국인들에 의한 자카르타 서예문화의 일면을 잘 보여주었다. 타국에 살면서 전통문화를 통해 자신을 가꾸고 외국인에게 우리 전통 삶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근사한 일인가.

특히 이번 전시회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의 4개 서예단체에서 찾아와 축하를 해 줄 만큼 현지인들에게 한국서예를 알리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는 데 큰 성과가 있었다.



아름다운 소통 Beautiful Communication

한·인니현대미술교류운영회와 재인니한인미술협회가 미술교류전 ‘아름다운 소통’을 간다리아 아트리에 펼쳐 놓았다. 한-인니 5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한 이 초대형 전시회는 인도네시아의 K-TV와 한국의 (주)리싸이트에서 주최하고 한국미술협회와 주인도네시아대사관에서 후원하는 등 규모와 의미가 대단히 큰 전시회이다.

이 행사의 개막을 축하하는 인사말에서 김호영 대사는 “대상이나 장르의 경계를 뛰어넘어 한국과 인도네시아 현대미술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상호이해와 문화교류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 전시회에 큰 기대를 보였다.

또한 재인니한인미술협회 인치혁 회장은 “혼자보다 여럿이 어울림으로 더욱 아름다운 화음을 들려주는 오케스트라처럼 수많은 작품들이 뿔어내는 영혼의 변주곡”을 통해 “지역과 문화와 사람을 연결하는 소통”의 전시회를 열게 된 기쁨으로 인사말을 대신했다.

이 전시회를 총괄하는 대표 양성모 화백은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국제작은작품미술제는 봄과



가을, 일 년에 두 번 열리는 정기전으로, 봄에는 국내에서 대작 위주의 전시회를 갖고, 가을에는 외국과 교류전을 열고 있는데, 주로 작은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년 동안 동남아 쪽에서 전시회를 많이 가졌으며 이런 국제적 예술교류는 한국미술의 위상과 독특한 미술문화의 영역을 보여주고, 양국이 서로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라는 설명에 덧붙여 작품의 크기가 작다는 것이지 그 안에 담긴 예술혼이 작다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번 전시회는 2010년 12월 16일에 개막하여 2011년 1월 24일까지 6주 동안 간다리아 아트리에 열린다.



행복한 동행



12월 21일(화), 술탄 호텔에서 한인색소폰동호회(회장 강희중)의 송년콘서트가 열렸다. 한인색소폰동호회(이하 색동회)는 직업과 나이를 불문하고 색소폰을 인연으로 만나 행복한 동행을 약속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날 콘서트에는 이상일(알토), 김덕규(테너), 김주철(알토), 최병우(테너), 박의태(알토), 위진복(테너), 임채실(알토), 배종문(테너), 이강용(알토), 김송정(테너), 양승진(알토), 강희중(테너) 등 12명의 회원이 가슴 뜨거운 연주로 홀을 가득 메운 청중들을 때료시켰다. 더욱이 초대 손님인 김우재(알토), 정병천(알토), 송창근(드럼), 이일하(소프라노)씨의 특별 연주와 이일하, 최종희 부부의 알토색소폰 듀엣은 타국에서 앞만 보며 바쁘게 살아오던 사람들이 바쁜 마음을 내려놓고 지나온 시간 속으로 아련히 빠져들게 했다.

강희중 회장의 “인생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남에게 이긴 순간보다 남들의 삶에 기쁨을 준 순간을 생각하며 더 큰 만족을 얻기 바랍니다” 라는 말은 색동회의 성격을 한마디로 정의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색동회는 이 콘서트를 열기 한 달 전에 뽕독인다물에서 순수자선공연을 열어 불우이웃을 도왔으며, 이번 콘서트에서의 성금도 모두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음악으로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며, 이 풍요를 이웃과 아낌없이 나누는 색동회 회원들은 자신들의 콘서트를 앞으로 ‘7080 콘서트’로 확대하여 따뜻한 마음이 식지 않도록 계속 나누고 나눔 포부를 밝히며 진정 행복한 모습이였다.

굿네이버스 인도네시아, 바탕가산에 제9초등학교 개소



굿네이버스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명: Gugah Nurani Indonesia)는 12월 11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민간 단체 지원사업의 2009년 서부 수마트라 지진으로 무너진 빠당 빠리아만(Padang Pariaman, Sumatera Barat) 군의 바탕가산 제9초등학교(SDN 09 Batang Gasan) 재건축을 기념한 개소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개소식에는 빠당 빠리아만군 군수, 교육청 관계자, 바탕가산 공무원, 지역사회 리더, 바탕가산 제9초등학교 관계자와 지역 주민 그리고 바탕가산 제9초등학교에서 공부하게 될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 지원 및 굿네이버스 시행으로 진행된 금번 학교 건축사업은 교실 3개, 교무실 1개, 도서실 1개, 다목적 및 컴퓨터실 1개, 화장실 2개를 포함한다. 또한 전기, 식수 및 안전 시설 설치 뿐 아니라 책걸상, 칠판 등을 지원하였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작년 지진으로 인해 무너진 13개 학교 중에서 현재까지 재건축이 된 학교는 4개교에 불과하며, 그 중 바탕가산 제9초등학교가 가장 큰 규모와 다양한 시설이 갖춰진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

굿네이버스는 학교 재건축뿐만 아니라 지진 피해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지진 발생 후부터 2010년 12월 현재까지 운영하였다. 빠당 빠리아만 지역 4곳 초등학교에서 주 1회씩, 빠당 지역 20곳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 음악, 스토리텔링 등의 활동을 통해 아동들의 심리 정서적 안정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더불어, 12월 10일 굿네이버스는 수마트라 사회부 관계자, 빠당 지역 교육청 관계자, 마을 지도자들과 빠당 지역 아동들의 보호 체계 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는 굿네이버스의 빠당지역에 대한 장기 지원 사업과 관련 하여 지역사회 욕구 조사 및 지속적인 협력을 위함이다.

<자료제공 굿네이버스>

인니옴부즈만 한국 교민 현장 방문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한인회와 인도웹의 주선으로 2010년 12월 1일, 수요일, 인도네시아 옴부즈만(Ombudsma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과 함께 ‘인니옴부즈만 주재 간담회(15:00~15:20)’와 ‘한국교민 고충 민원상담(15:30~17:30)’을 자카르타 한인회 문화회관에서 실시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0년 2월 1일 재외국민과 기업의 권익향상 및 고충해결을 위한 권익위와 인니옴부즈만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고, 그 후 몇 차례 협력조정회의를 거쳐 몇 가지 현안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인니옴부즈만과 국민권익위의 자카르타 한국 교민 현장방문은 이 MOU에 따른 것으로써 인도네시아의 법률이나 각종 제도에 대한 현장 상담으로 한국 교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현장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는 인니옴부즈만의 정식 고충 민원으로 접수하여 정밀조사와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11월에 안산시 외

국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도네시아 교민간담회를 실시하고 고충민원 접수를 위한 현장상담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출입국비자 및 고용과 임금 등에 대한 민원을 처리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홍현선 상임위원과 인니옴부즈만의 Prof. Dr. Sunaryati Hartono 차석옴부즈만 외에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애로,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한-인니 MOU 및 국민신문고 인니어창구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인니옴부즈만 측은 허가관련, 경찰고소, 부동산의 분쟁이 많다고 말하며 인니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민원이 가능하도록 메일과 웹사이트에 한글을 만들 것이며 인원을 늘려 원활한 민원처리를 하겠다고 그간의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평일 낮 시간이라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으나, 이어서 인니조사관과 통역, 권익위 직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교민의 고충을 직접 듣는 상담이 시작되었다.

빠른 시일 내에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사이트(<http://www.ombudsman.go.id>)에서 한국어 민원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니측의 노력을 기대한다. 이 사이트가 잘 운영되면 한국과 인도네시아 교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자료제공 인도웹〉



‘아름다운 나눔’ 자선작품전시회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난해 ‘아름다운 나눔’ 자선작품전시회를 격려해 주시고, 귀한 발걸음으로 자리를 빛내 주신 분들, 미처 오지 못하는 못하였지만, 저희의 작은 뜻에 귀한 마음을 실어주시고 후원해주신 기관과 모든 분들께 삼가 감사의 인사를 지면으로 드립니다.

저희 ‘아름다운 나눔’ 은 인도네시아에 발생한 많은 재해를 보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현지 주민들의 구호, 재화에 동참하려는 마음과 뜻이 있는 각계 인사들의 모임으로 자신들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나 소장품을 전시, 판매하여 그 판매수익금으로 Yogyakarta 화산 피해 주민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얻은 귀한 경험과 취지를 교민사회와 함께 나눔으로, 내년에는 참가대상과 후원의 폭을 개방하여 이 땅의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민들을 도움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성숙한 교민문화가 활성화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눔은 우리들을 뒤돌아보게 하는 삶의 오솔길입니다. 또한 나눔은 모두의 기쁨이 됩니다. 이러한 기쁨이 릴레이처럼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지친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작은 정원 하나 가꿀 수 있도록 손길을 나누고 싶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사업과 가정에 평안과 건강하심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름다운 나눔’ 대표 강 희 중 의 참가 올림

강 희 중 0816 798 221
 사 공 경 0816 190 9976
 인 치 혁 0813 1514 9978
 김 은 정 0816 1946 015
 엄 중 한 0811 177 503
 이 수 은 0855 8856 745



12월 27일 한인회 사무실을 찾아와 외환은행 나눔재단의 성금을 전달하는 인도네시아 외환은행 조용우 은행장



족자 화산 피해 현장에서 긴급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밥퍼해피센터’의 최원금 선교사부부

땅그랑한인회에서 보내온 온정



12월 29일, 땅그랑한인회 이세호 회장과 수석총무가 한인회 사무실에 찾아왔다. 족자 이재민 돕기 성금을 한 곳에 모아 쓸모 있게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찾아온 것이었다. 그런데 봉투에서 잔돈들을 꺼내 놓는 모습이 여느 성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 이 성금은 지역 내의 요소요소에 성금함을 설치하여 그것을 합한 잔돈들 그대로였다. “동전까지 가지고 올 수는 없어 지전으로 바꾸기는 했다” 고 웃는 이세호 회장과 수석총무의 모습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진지하고 진솔한 마음이 느껴졌다.

땅그랑한인회에서 모아온 성금 27,622,000루피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머라피 화산 이재민 돕기 성금 모금 내역 (Bencana Alam Sumbangan Gunung Merapi)

· 땅그랑한인회모금함(Korean Association Tangerang)	3,022,000
· 땅그랑 명가식당(Restaurant Myung Ga)	2,000,000
· KOPA 2주년 행사시 모금(Korea Footwear Association)	9,600,000
· 땅그랑 수우회(Soo Woo Golf Club Tangerang)	3,000,000
· 땅그랑 인우회(In Woo Club Tangerang)	3,000,000
· 땅그랑 길거리회(Gil Geo Ri Culb Tangerang)	3,000,000
· 땅그랑 교민교회 성도(Gereja Gyo Min Tangerang)	3,000,000
· 땅그랑 무조건 골프회(Mu Jo Geon Golf Club Tangerang)	1,000,000

2010 연말 불우이웃돕기 및 재해성금 명단

번호	회사명	대표자	금액	
			USD	RP
1	KORINDO GRUP	승은호		20,000,000
2	PT. DAYUP INDO	석웅치		5,000,000
3	PT. DONG JUNG	조규철		5,000,000
4	PT. HANINDO EXPRESS	신기엽		5,000,000
5	HANKOOK CERAMIC	차상만		10,000,000
6	PT. INWHA	황의상		5,000,000
7	PT. KIPCO	김영만		10,000,000
8	PT. POWERTECH	전민식		2,000,000
9	PT. UNITRA ADIHJAYA	박광용		2,000,000
10	PT. VICTOR JAYA RAYA	이호덕		5,000,000
11	YSM & PARTNERS	이승민		1,000,000
12	땅그랑 한인회			27,622,000
13	색스폰 동호회			3,000,000
14	아름다운 나눔	강희중		30,000,000
15	외환은행 나눔 재단	조용우		90,050,000
16	한인연합교회			10,000,000
17	한인청년회			10,000,000
T O T A L				240,672,000

오랑꼬레아의 아리랑

2010. 12. 29. 푸닝안에 있는 우스마르 이스마일 영화센터에서 다큐멘터리 ‘오랑꼬레아의 아리랑’ 시사회가 있었다. 다큐멘터리 ‘오랑꼬레아의 아리랑-제4부 남겨진 가족들’이 2010년 11월에 KBS 서울프라이즈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최우수상을 받은 소식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져 교민사회에서도 잘 알고 있는 일이다. 지난 대회에 비해 출품작이 가장 많았고 경쟁도 치열했던 대회였으며, 더욱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출품을 한 터라 수상의 의미가 더욱 크게 평가되어 본지 역시 ‘오랑꼬레아의 아리랑’ 제작과정과 내용을 2010년 11월호에서 자세하게 전한 바 있다.

이날 시사회에서 박영수 K-TV 사장은 “이번 수상이 세계한인사회에 인도네시아의 한인사회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인사회의 얘기를 차곡차곡 담아가며 교민에 의한 교민을 위한 방송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인사말을 대신했다.

절제된 영상과 스토리로 현장감과 감동을 잘 살려낸 이 다큐멘터를 제작한 문우석 PD와 채인숙 작가는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로 인사를 했고, 채인숙 작가는 이 다큐멘터를 통해 우리 모두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제작의 취지를 전했다.

100년이라는 이민사를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한인사회의 현주소를 4부작에 담아 심도 있게 조명하면서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이 다큐멘터리 제작의 원동력은 김문환 선생이었다. 초창기 인도네시아에 정착한 한인들의 발자취를 정리하여 ‘한인사회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본 지에 특별연재를 하기도 했던(참조, 2006년 한인뉴스) 김문환 선생의 자료가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한 편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거기에 동참해야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다. 그들의 화음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멋진 작품이 탄생하는 것이다. 제작을 위해 애쓰신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분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인도네시아 교민들의 현주소를 묻는 이에게 4부작 ‘오랑꼬레아의 아리랑’을 권한다.



2010년 중부자바 송년의 밤

골프대회, 우리음식문화보급 행사 개최

지난 12월25일 중부자바지역 한인회는 어느 해보다 많은 한인회원사/회원/외부초청인 등이 고편골프장(스마랑 소재)/식당에 모여 골프대회 및 현지인을 위한 우리음식문화 보급행사(한인 부녀회 주관)와 노래자랑 등으로 풍성한 연말모임을 갖고 즐거운 나눔의 시간을 보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신기업 재이니한인회 수석부회장은 “예전과 달리 중부자바의 많은 한인들이 모여 위상을 높이며, 아름다운 한인사회를 만들어가는 모습에 감사의 인사를 하며, 어려워지는 국제경쟁 속에서 서로를 도우며 함께 발전하는 중부자바 한인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축하인사를 하였고 주인니한국대사를 대신하여 3명의 유공자를 시상해주었다. 특히 함께 참석했던 김주철 부회장은 색소폰연주로 이 날의 분위기를 한껏 띄워주며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날 송년의 밤을 주최한 중부자바한인회 김재훈 회장은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는 슬회와 함께 “큰 사건사고 없이 잘 넘어가는 듯했으나 하반기부터 루피아 절상에 따른 기업 손익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힘든 시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은근과 끈기로 흔들림 없이 극복하고 향상시켜 가는 한인회원사 및 회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말로 지난 1년간 고락을 함께 했던 회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었다.

또한, 머라빠화산폭발 이재민을 위해 긴급구호품과 기금을 모아 주지사에게 전달한 일들은 현지 사회에 오래도록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며, 지원과 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격려와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 2010년 활동상황 >

1. 4월 : 중부자바 투자청과 한인기업 간 저녁모임 및 투자기업환경 개선 논의.
(6월/8월/11월 중부자바 한인회장, 투자청 방문 -지방 투자청 아눔 대표에게 지속적인 세관/세무/인금인상 등 환경개선 건의 및 요청)
2. 7월 : 대사관 및 중부자바한인회 주관, 경제설명회 개최(국세/관세/노무/코트라)
- 7월1일, 김호영 대사 외 담당관 방문, 분야별 설명회 실시
- 7월2일, 웅아란 지역 2개 업체 방문, 기념식수
3. 11월 : 머라빠 화산 폭발에 따른 성금 및 물품을 모아 피해지역 및 주지사에게 전달
4. 12월 20/21 : 코트라/한인회 주관 세무/법률 관련 일대일 심층 컨설팅 실시
5. 12월 25일 : 송년모임 및 우리음식문화 보급 행사

<2011년 사업계획 (안)>

1. 현지 대관 및 대민업무관계 지속적인 개선 및 유지에 노력
2. 한인회관/문화센터 설립 준비 계획
3. 한글학교 지원 및 장학사업 운영 계획
4. 불우이웃돕기사업 확장
5. 단체 및 모임(부녀회/낙시동호회/등산모임/골프모임/종교모임 등) 관계 유지 및 협조



우리 전통 음식 보급 행사에
음식 만드는 방법 교육에 현지 학생 및 일반인
3일간 총 27명 참여!



JIKS 교장 재외한국국제학교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

- 한국경제교육협회와 경제교육 협력 양해각서 체결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교장 선종복은 14개국 30개 교 재외한국국제학교 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1년 임기로 재외한국국제학교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재외한국학교의 교사 채용 및 양성, 교육과정 모형개발 지원, 교사연수, 행정업무 및 연구·장학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교육전반에 걸쳐 상호 정보 공유를 통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인재를 양성하는데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2010.12.2일 ‘한국경제교육협회’와 재외한국학교, 한국교육원 간에 ‘한국경제교육협회’에서 발간하는 ‘아하경제’를 배부하기로 하는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JIKS 특성화 T/F팀 발대식



- 이번 발간된 ‘아하경제’는 외국인학교의 청소년에게 올바른 경제 가치관을 정립하고,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교육신문으로,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볼 수 있는 유익한 국민 경제교육 자료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다. 이 협약을 통해 재외국민학교는 경제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학교의 청소년은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교장선종복)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외 한국학교 교육과정 선진화 방안 및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교육환경의 확보,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JIKS 특성화 T/F팀’이 2010년 12월 20일 발족되었다.

활동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SPEC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영어 교육을 강화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며, 현지 학교와의 교류 및 체험 학습의 강화를 위해 교환 학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

T/F팀 ‘의 가장 큰 특색은 한국대학에만 얽매이지 않고, 세계 여러 국가에 있는 다양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맞춤형 진학 ‘에 있다. 북미지역, 영국권, 인도네시아 지역 전문가 양성 등 글로벌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교육과정 및 전반적인 사항을 개혁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기숙형 학교로의 전환으로 우수한 학생이라면 인도네시아에 살지 않는 학생도 JIKS에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JIKS 특성화 T/F팀’은 팀장(사회과 교사 백형균)과 초·중등 교사 13명과 인도네시아대학 교수 약간 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0년 12월 20일 발대식 후, 1여 년간의 회의를 거쳐, 2011년 특성화를 위한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재난 구호 성금 모금 전달

2010년 12월 4일 토요일에 JIKS 전교어린이회 및 중고등 학생회장단이 인도네시아 TV One 방송국에 총 26,172,250(RP)의 재난 구호 성금 전달했다. 이 구호 성금은 초등 전교어린이회 및 중고등 학생회 주관으로 회장단들이 쓰나미와 화산폭발 등 인도네시아 재난 구호 성금을 위해 아침자율학습시간 등을 이용해 JIKS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금한 것이다. 성금 모금 전달은 당일 프로그램 “Apa Kabar Indonesia” 에 생방송 되었다.



음악발표회

2010년 12월 15일 수요일 7교시와 8교시에 걸쳐 대강당에서 초등 전 학년 및 학부모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음악발표회가 실시되었다. 이날 연주한 연주자들은 지원을 받아 선출되었으며,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기량을 뽐내었다. 독창, 중창,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가 연주되었으며 JIKS 초등 오케스트라가 함께 하여 더욱 멋진 음악을 연주하였다. 이날 연주를 통하여 어린이들은 무대 경험과 자신감을 얻는 기회가 되었으며 다양한 음악을 접하고 음악에 대해 도전이 되는 기회였다.



2010학년도 겨울방학

2010학년도겨울방학이 2010.12.23(목)~2011.1.24. 월요일까지 33일간 실시된다. 방학동안은 한 학기동안 부족했던 공부와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이며, 또한 여러 가지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가정에서도 규칙적으로 생활하여 건강하게 지내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 보람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학일시는 2011.1.25(화)이다. 방학동안 도서관 개방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할 예정이다.



English Concert

지난 12월 10일 5,6교시에 1,2학년어린이들이 201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영어 시간에 배웠던 노래들로 대강당에서 콘서트를 열었다. 1학년 영어 노래, 2학년 영어 노래로 진행되었으며 또한, 3학년 어린이들이 영어 연극으로 동생들을 격려해주는 무대도 있었다.



'Korean Club'

서미숙 <수필가>

과 함께 했던 감동이야기

Korean Club 하면 이곳 인니에 사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관심이 쏠리고 귀가 쫄긋하기 마련이다. 혹시나 무슨 한국인들만의 재미있는 클럽이 아닌가 해서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Korean Club이란 다름아닌 자카르타에 위치한 국제학교 JIS(Jakarta International School)에서 한국학생들만으로 이루어진 동아리 모임이다. 지난 8월, 그러니까 국제학교에선 새 학년이 막 시작된 즈음, 올해 11학년인 둘째는 학교에서 돌아온 어느 날, Korean Club의 임원으로 뽑혔다며 엄마도 많이 협조해줄 것을 막무가내로 통보해 왔다.

“아니, 임원이 되었으면 네가 된 것인지 엄마가 할 일이 뭐가 있다고……”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이고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보니 공부를 그다지 파고들지 않는 둘째와는 부드러운 대화가 이어지질 않고 있었다.

대수롭지 않은 듯이 아이의 이야기에 대꾸를 하면서도 한편으론 신기하고 대견한 마음이 앞선다. 나는 평소에 국제학교만의 다양한 커리큘럼이라든지 방과 후 여러 동아리 활동 등이 고교시절을 보내는 아들의 정서문화에 유익하다는 생각을 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으로 아들이 활동하는 Korean Club을 도와 간식 봉사를 하게 되면서 감동의 이야기 하나를 건졌으니 어쨌든 아들 덕에 쓸쓸한 수확을 얻은 셈이다. 약 2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Korean Club은 매년 JIS에서 주최하는 UN Day 행사에 열정적인 참여로 인해 학교측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Korean Club은 JIS 내에서도 한국인이라는 자부심과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하며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클럽으로 9학년에서부터 12학년까지 한국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한국학생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4명의 임원들과 코리안 언어 코스를 담당하시는 유일한 한국인 선생님 한 분이 Korean Club을 이끌어 가는 중심 추 역할을 한다. 해마다 UN 기념일 행사에서 한국인만의 독특한 공연을 선보여야 하기 때문에 임원들과 코리안 선생님, 그리고 임원 어머니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연 아이টে를 선정해서, 연습일정을 잡는다.



두 달에 걸친 연습기간 동안 학생들의 안전 및 질서, 그리고 간식을 위한 봉사를 담당하는 일 또한 임원 어머니들의 몫이다. 올해는 고민 끝에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국기인 태권도 시범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뜻이 모아짐과 동시에 참여할 학생들의 인원을 파악 하고 지도를 담당할 태권도 사범을 정하는 일, 그리고 5분 이내에 태권도의 핵심동작만을 극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었다.

그런데 정말 하늘이 도왔음일까, Korean Club을 위해 결정적인 인연이 다가와 주었다. KOICA 국가봉사단원 소속으로 나와있던 경희 대학교 태권도사범 3명이 Korean Club 학생들을 위해서 기꺼이 봉사해 주기로 섭외가 되었다.

KOICA 태권도사범들은 42명의 참여 학생들과 더불어 태권도 연습을 시작하면서 UN Day를 빛낼 추억 쌓기에 돌입했다. 20대의 한국 청년들이었기에 고국의 동생들과도 같은 Korean Club 학생들과는 본질적으로 통하는 뜨겁고 끈끈한 그 무엇이 있었다. 바라보는 것 만으로도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태권도를 접해 보지 못한 여학생들이 동작을 잘 따라 하지 못해 걱정을 했는데, 사범들의 세심하면서도 성실한 지도로 모두들 멋지고 씩씩하게 동작이 나와 주었다. 사범들은 동영상도 제작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혼자서도 동작을 익힐 수 있도록 마음과 열정을 다 했다.

하루하루 태권도 동작 중 단체 기본동작부터 고난도 격파 동작까지 완성되어 나가는 과정을 지켜 보면서 역시 우리의 국기, 태권도가 지니고 있는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태권도 이기에 동작 하나하나 신중함이 묻어 있었고 짧은 시간 이지만 한국의 저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사범들과 Korean Club 학생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머라피 화산의 폭발로 격파용 송판이 50장밖에 구해지지 않아 스티로폼을 구해 연습 하며 본 공연 때 송판이 깨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기억들도 재미있는 에피소드 중 하나다. 드디어 기다리던 UN 기념일인 11월 24일이 되었다.

모두들 제각제각 시계추처럼 다가오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프로그램 일정상 코리안 클럽이 맨 첫 번째 순서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각 나라의 학부모들이 초청된 저녁 6시에 맞추어 Korean Club은 수업을 끝낸 오후 3시부터 온몸이 땀에 젖는 것도 잊은 채 마지막 연습에 몰입했고, 봉사하는 어머니들도 도시락을 준비해 체력도 단단히 비축을 했다. 드디어 미국인 교장 선생님이 개막을 선포함과 동시에 각 나라의 국기 입장식에서 태극기가 입장이 될 때는 한국학생들의 우렁찬 박수 소리에 저절로 눈시울이 뜨거웠다. 사회자가 코리안 클럽에 대한 소개를 마치자, 대기하고 있던 Korean Club 학생들은 흰색의 태권도복과 검은띠로 단정히 정렬한 채 회장의 힘찬 구령소리와 함께 멋지게 입장을 하였다. 음악에 맞추어 단체 동작을 시작으로 부분별 격파 동작 순서가 되었다. 각자 연습한 대로 세 그룹으로 나뉘어 손으로 내려 치는 수직격파는 남학생들은 물론 여학생들도 송판을 그 자리에서 박살을 내었다. 관중석에서 송판이 깨어질 때마다

터져 나오는 학부모들의 박수소리는 장내가 떠나갈 듯 환호가 대단했다. 제 2, 제 3그룹의 돌려차기, 뛰어앞차기, 옆차기, 뒤차기 등도 송판으로는 처음 하는 격파인데도 모두가 힘있는 동작으로 멋지게 격파를 이루어냈을 때의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피날레 동작까지 각자의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완벽하고 씩씩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관중석에서 지켜보면서 그 동안 함께 봉사했던 어머니들과 끝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그것은 어쩌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낸 기쁨과 같은 감동의 눈물이랄까? 촉박했던 연습시간, 외국학교에서 그것도 전혀 한국의 태권도를 접해볼 기회가 없었던 한국학생들이 대부분이었기에 그러했으리라.

Korean Club은 UN Day 이틀에 걸쳐서 공연을 선보였고 두 번의 공연을 모두 멋지고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다. 태권도 순서가 모두 끝난 후, KOICA 태권도 사범들과 서로 부둥켜안고 감격의 순간을 나누었음은 물론이다.

Korean Club 교실에서 임원들과 참가학생들은 사범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인 메모 글과 캐릭터를 전달하며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아쉽고 서운한 작별의 시간을 가졌다.

“남자의 자격”이라는 TV 프로에서 박칼린씨가 지휘하는 합창단이 시청자들의 감동과 열렬한 환호를 받은 적이 있다. 그것은 단원들과 지휘자가 함께했던 연습기간 동안 마음과 느낌이 진정으로 하나되어 멋진 결과를 이루어 냈기 때문이었다. 외국에서 한국인 고등학생들과 KOICA 청년 태권도 사범들과의 만남, 그들이 이루어 낸 이 멋진 감동도 아마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서로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새롭게 다진 UN 기념일의 멋진 태권도 공연, 오래오래 그들의 가슴속엔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이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가 되어줄 것임에 틀림없다.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었던 Korean Club과의 추억도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 학교를 다녀도 마음은 고국을 향해 있고 한마음으로 뭉칠 수 있었던 소중한 체험이 되었음을 확신한다.

Korean Club 학생들에게 국가에 대한 사랑을 태권도를 통해 단결과 화합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뜨거운 경험을 안겨 주었고 기꺼이 마음을 다해 태권도 지도로 봉사해 준 KOICA 태권도 사범들과 그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별과달 김성월 / 수필가, 방송프리랜서
hansol0508@hanmail.net

별과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뱀이 꽃으로 불리는 플로레스 섬

라마레라 아낙네들의 새벽행상-2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보따리들

새벽 02:15분!

달콤한 잠에 빠져 있는 시간에 ‘새벽시장 갈 시간’이라며 밖에서 방문을 두드렸다. 어젯밤에 분명히 민박하는 집 앞으로 03시경에 버스가 온다고 했다. 그런데 이 시간개념 없는 시골버스 운전수는 마음이 얼마나 급했으면 02시 30분인데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을까. 정말이지 일어나기 싫어 밤사이 모기에 물린 팔뚝만 긁적이고 있었다.

라마레라 사람들은 7일장에 간다. 그러나 중간에 필요한 것을 구입하기 위해선 아낙네들이 행상나간다고 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고 이웃마을로 행상갈 때 나도 취재차 따라가겠다고 약속했다.

어제는 고래 잡으려고 바다로 돌아다녔고 오늘은 산 너머 새벽시장을 가야한다. 벌써 며칠 짜인가, 피로가 온몸에 더덕더덕 엉겨 붙은 느낌이다. 나는 모기에게 물려 가려운 곳에 물파스를 대충 짹짹 눌러 바르고 방문을 나와 운동화를 신었다. 신발 끈을 묶고 일어서는데 직업의식 때문일까 몸에 붙었던 피로들이 가을날 단풍 떨어지듯 내 몸에서 후드득 떨어졌다.



부르는 소리에 발길을 멈춘 라마레라 아낙네들

지나치게 미리와 기다려준 알미운 버스를 탔다. 내가 탄 버스는 이름만 버스지 사실 커다란 8톤 트럭이다. 짐칸에 긴 의자 마주보게 해놓고 천막으로 덮어씌운 차다. 내 보기에 아무리 ‘트럭’ 이라 해도 그곳 사람들이 ‘버스’라고 말하면 나도 ‘버스’라고 해야만 한다. 그곳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그래야만 그들과 말이 통하고 의사전달이 잘되기 때문이다.

마을사람들은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버스로 올라탔다. 차안에는 사람보다 짐들이 더 많았다.

한 아줌마는 살아있는 닭 한 마리와 빈 물통을 꺼안고 있었다. 스리삐낭(Sri Pinang/여자들이 담배 대용으로 쓰리와 삐낭 열매와 분필가루를 입에 넣어 씹는 것)을 즐겨 씹은 탓으로 옷을 때마다 붉게 물든 치아들을 보여주는 아줌마, 그 옆의 젊은 여자는 가오리 몇 조각과 덜 마른 생선 두 마리 그리고 고래고기 말린 것을 갖고 있었다. 나는 젊은 여자 옆으로 가서 비집고 앉았다.

차 안의 풍경이 다양하듯이 여러 가지 냄새 또한 풍부했다. 신경통 앓는 아주머니가 꺼내 바른 발삼(물과 스 대신 바르는 연고)냄새, 아저씨의 담배연기와 생선들의 퀴퀴한 향기들이 차가 흔들릴 때마다 풀풀 날아다녔다. 내가 제일 뒤쪽에 탔기에 망정이지 앞쪽에 탔더라면, 냄새를 피하려고 머리를 밖으로 내밀었다. 아니, 차 지붕에서 꿀꿀거리는 돼지소리가 들려왔다. 문득 트럭에 실려 팔려가던 소의 모습이 떠올랐고 마치 내가 그 소가 된 기분이라서 킬킬 웃음이 나왔다.

버스는 자갈길을 길게 두세 번 오르막내리막 하더니 멈췄다. 내가 따라다녀야 할 다섯 명의 아낙네들이 모두 내렸다. 나도 내렸다. 새벽 4시가 못 되었고 아직 사방이 컴컴하다. 보따리와 아낙네들은 흥가 비슷한 곳에서 날이 밝길 기다리며 토막잠을 잤다. 주인을 따라서 두 마리의 생선도 머리를 쳐 박은 채 잤다. 길설 차가운 바다에 몸을 대고 자는 그들을 보면서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새벽을 기다리며 토막잠을 자는 아낙네들



금쪽길에서 물물교환 하는 모습들

내가 사십 년 이상 기도해오던 주기도문 중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말씀이 왜 있는지 그제야 이해하게 됐다. 또 그들이 고래 잡으러 갈 때 배 위에서 그 부분을 왜 그렇게 큰소리로 외쳤는지도. 그때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루 세끼 식사는 참으로 많은 횃수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새벽이 먼저 눈을 떴다. 아낙네들도 눈을 떴지만 아직 잠이 덜 깬 듯 보였다. 아낙네들은 두 팔로 물건을 선반 위에 올려놓듯이 보따리를 자신들의 머리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바쁜 걸음으로 마을 골목길을 잘도 쏘다녔다. 골목 여기저기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급한 발길을 멈춰도 보따리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머리 위에 얹전히 붙어 있었다.

라마레라 지역은 논과 밭이 없어 논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채소와 쌀이 귀하다. 채소는 파파야 잎이나 나무 이파리를 따서 삶아 먹고 밥에는 옥수수나 고구마를 섞어 밥을 짓는다. 처음에 노란색 밥을 받고서 나는 좁쌀을 섞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옥수수였다. 아낙네들의 물건은 주로 고구마와 옥수수로 물물교환 됐다. 귀하다는 고래 고기 한 점

크기가 작은 옥수수 스무 개나 바나나 한 줄과 거래가 되고 있었다.

아낙네들 중에 아주 젊은 여자도 있었다. 그는 올해 스물아홉 살이었고 시어머니와 함께 행상을 다녔다. 태어나서 라마레라를 벗어나 본 적이 아직 없다고 한다. 아니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화장을 발라보지 못했다는 여자, 미시족으로 멋부리고 살아도 여자의 욕심으로 성이 차지 않을 나이다. 그런데 보따리 이고 시어머니 또래들과 이 마을 저 마을 행상 다니고 있었다.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나 같으면 한발자국도 걷지 못했을 터인데 그녀는 걸기도 잘했고 계다가 웃기(?)도 잘했다.

그 젊은 아낙네 머리 위의 보따리 부피가 빨리 줄어들면 그만큼 그녀에게는 가족들을 위한 식량이 준비되고 보람된 하루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같은 여자의 눈으로 봐서 그럴까, 그녀의 보따리 부피가 빨리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젊은 그녀가 산 넘어 힘든 새벽 행상을 더 자주 다녀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내 가슴 한구석이 짠하게 아파왔다.



나란히 행상 다니는 고부간



라마레라 행상 아낙네들의 뒷모습



민사소송법 · 5

이승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전호에서 계속)

36. 판결문의 구성

민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판결문의 구성 요소는 판결문 서두, 소송 당사자의 인적사항, 판결 근거 및 원고의 청구 사항에 대한 답변이다.

36.1. 판결문 서두

모든 판결문에는 서두에 반드시 “Demi Keadilan berdasarkan KeTuhanan Yang Maha Esa” 이라는 말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결문의 서두에 이 말이 쓰여 있지 않으면 판결문의 집행 효력이 없다. 직역하면, “유일하고 위대하신 신성에 근거한 공정을 위하여”, 의역하면 “신의 이름으로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 정도로 해석이 된다. 판결문 서두에 신성에 근거한 공정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어서 인도네시아 판사는 신의 대리인으로 재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36.2. 소송당사자의 인적 사항

원고 및 피고의 성명, 나이, 주소, 변호인의 성명 등을 기재한다.

36.3. 판결 근거

먼저 사건 자체에 대하여 양측의 주장을 간략 명료하게 열거하고 다음에 판결의 법적인 근거를 설명한다.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변론을 듣고 재판부는 왜 그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사회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판결의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정확하고 이유가 설명되는 객관적인 판결을 내린 근거를 판결문에 명시해야 한다. 판결 근거가 애매모호한 판결문은 파기 청구 사유에 해당된다.

36.4. 원고가 청구한 사항에 대한 재판부의 답변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의 변론을 듣고 답변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두꺼운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에 재판부의 답변이 쓰여 있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를 기각한다, 청구한 사항 전체를 인용한다, 일부만 인용한다, 피고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선언한다, 계약이 적법함을 선언한다, 피고가 계약을 위반했음을 선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 배상금 얼마를 지불하라, 판결문 내용을 집행할 때까지 매일 얼마의 벌금을 지불하라, 소송비를 누가 부담하라, 등 원고가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재판부의 구체적인 답변이 쓰여 있다.

37. 항소

37.1. 항소 등록 시한

1심의 판결문에 불복하는 소송 당사자가 1심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시한은 1심의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다. 소송당사자가 재판부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법정에서 출두하였으면 판결문이 낭독된 날로부터 14일이 기산되고 소송당사자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법정에서 출두하지 않았으면 판결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 기산 된다. 1심의 판결문에 대하여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등록이 있으면 1

심의 판결문은 효력을 상실하나, 반대로, 14일 이내에 항소등록이 없으면 1심의 판결문이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확정판결문이 되며 승소자는 강제 집행이 가능해진다.

37.2. 항소장

항소는 사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하는 과정이므로 지방법원에 제출했던 소장の内容이나 청구하는 사항을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논조를 바꾸면 위험부담이 따르므로 논조변경은 심사숙고 후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37.3. 항소등록 및 항소장 송달

항소등록을 받은 지방법원은 상대 소송당사자에게 항소등록 사실을 송달하며, 항소장이 접수되면 항소장 사본을 상대 소송당사자에게 송달한다. 피항소자는 카운터 항소장 제출 의무는 없으나 카운터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우려되므로 통상 대부분의 피항소자는 카운터 항소장을 내고 있다. 카운터 항소장 제출 시한은 없다. 그러나 항소장이 지방법원에 접수되면 소송당사자들에게 14일간의 소송서류 열람 기간을 통보하고 이 기한이 지나면 지방법원은 피항소자의 카운터 항소장 없이 하더라도 소송 파일 전체를 상급법원으로 보낼 수 있다. 이 소송서류 열람기간이나 열람기간이 끝나는 대로 피항소자는 카운터 항소장을 제출하여 카운터 항소장이 소송 파일과 함께 상급법원으로 보내지게 함이 바람직하다.

37.4. 항소 재판

항소 재판은 지방법원처럼 판사 3인의 재판부를 구성하고(특수한 경우에는 1인 판사) 전체 사항에 대하여 다시 조사를 하고 판결을 내린다. 지방법원의 원심을 깨고 항소자 승소를 내릴 수 있고 원심을 확인하는 항소자 패소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항소 재판의 처리 시한은 대법원의 지침은 6개월로 되어 있



으나 통상 6개월이 되기 전에 내려지고 있다.

37.5. 항소재판 판결문 송달

항소재판에 관련된 모든 서류의 재출이나 송달은 처음 판결문을 내린 지방법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항소재판 판결문도 마찬가지로 지방법원을 통하여 소송당사자들에게 송달된다.

38. 상소(파기 청구)

대법원을 제외한 최종심급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파기 청구가 가능하다. 일반 고등법원의 판결문, 상업법원의 판결문, 노동법원의 판결문, 세무법원의 판결문 등은 파기청구의 대상이 된다.

38.1. 파기청구 등록 시한

최종심급의 판결문에 불복하는 소송 당사자가 최종심급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파기청구를 등록할 수 있는 시한은 최종심급의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다. 소송당사자가 재판부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법정에서 출두하였으면 판결문이 낭독된 날로부터 14일이 기산되고 소송당사자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법정에서 출두하지 않았으면 판결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 기산 된다. 최종심급의 판결문에 대하여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파기청구등록이 있으면 최종심급의 판결문은 효력을 상실하나(상업법원의 파산선고 판결문은 예외), 반대로, 14일 이내에 파기청구 등록이 없으면 최종심급의 판결문은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확정판결문이 되며 승소자는 강제 집행이 가능해진다.

38.2. 파기 청구장 제출 의무 및 제출 시한

항소자는 항소장 제출 의무가 없으나 파기청구자는 파기청구 등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파기 청구장을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14일 이내에 파기 청구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파기청구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파기청구자가 파기 청구장을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지방법원은 파기청구 등록 사실과 파기 청구장 사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한다. 피청구자는 카운터 청구장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파기 청구장 사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카운터 파기청구장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피청구자가 카운터 청구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만큼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통상 거의 모든 피청구자가 카운터 청구장을 제출하여 파기청구자에게 대항하고 있다.

38.3. 파기청구 재판부 구성

파기 청구장과 카운터 파기 청구장을 접수한 관할 지방법원은 소송파일을 대법원으로 이첩하고 대법원에 접수된 소송파일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지명한다. 재판부는 팀으로 이미 정해져 있으며 대법원장은 팀을 지명할 뿐이다. 공익이나 다수자의 이익에 관련된 민사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장에게 우선 처리를 청원할 수 있으나 우선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38.4. 파기청구 재판

파기청구 재판은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다. 하급법원이 법률을 제대로 적용시켰는지 여부를 재판한다. 재판을 하는 방법은 소송파일이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는 대법관을 하나 씩 방문하는 방법으로 한

다. 제1대법관, 제2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순서로 소송파일을 각각 조사 후 최종적으로 협의하여 판결을 내린다.

38.5. 파기청구 판결문 송달

대법원은 파기청구 판결문을 관할 지방법원에 내려 보내고 관할 지방법원은 다시 소송 당사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송달을 의뢰하여 소송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파기청구 판결문을 소송당사자에게 송달한다. 대법원의 판결문 일자로부터 소송당사자가 송달을 받는 일자까지 통산 시차가 관료주의 때문에 여러 주일이 걸리고 있다. 판결문을 빨리 필요로 하는 소송당사자는 본인 혹은 변호사를 통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가서 직접 수령하는 방법의 시간을 절약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38.6. 파기청구 판결문의 효력

파기청구 판결문은 확정판결문이며 소송당사자를 구속하는 다음과 같은 효력이 있다.



38.6.1. 구속력

확정판결은 소송당사자를 구속한다. 구속하다는 뜻은 구속력이 생겼으므로 소송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38.6.2. 집행력

판결의 집행력은 파기청구 판결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한다. 이행 판결에

승소한 소송당사자는 패소자에 대한 강제 집행을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에“를 들면 승소한 채권자는 패소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기청구 판결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파기청구 판결문이라고 해서 모든 파기청구 판결문이 강제집행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부부의 동거 명령 같은 이행판결은 승소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하다.

38.6.3. 형성력

판결의 형성력은 확정판결이 기존의 법률 상태의 변경을 생기게 하는 효력을 의미한다. 형성력은 소송당사자 뿐 아니라 제삼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에”를 들면 누구에게 파산을 선고한다는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소송당사자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누구는 파산이 선고되어 금치산자가 되는 법률상태의 변경을 생기게 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39. 판결문의 집행

승소가 확정판결문으로 확정됐다고 해서 승소자가 패소자에 대하여 막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승소자는 먼저 확정판결문을 첨부해서 관할 지방법원에 집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승소자의 집행허가 신청을 접수한 지방법원은 패소자에게 지방법원으로 출두할 것을 명하여 8일 이내에 확정판결문의 내용 이행을 명한다. 패소자가 지방법원의 출두 명령에 불응하거나 8일 이내에 확정판결문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패소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 명령서를 발급하고 동산 부동산의 순서로 집행 압류를 하고 공매한다. 판결문 집행 허가는 판사의 직권으로 하지 못 하며 반드시 승소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지방법원에서 허가한다.

40. 패소자 구금 제도

소송에는 승소하였으나 패소자가 재산을 다 빼

돌려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 등에 대비하여 채무자에 대한 인신 구금 제도가 있다. 채무액 10억 Rupiah 이상인 경우에 승소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은 패소자의 인신 구금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방법원의 패소자 인신 구속 명령은 검사가 집행한다.

41. 민사 소송 시 유념해야 할 사항들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이유는 불법 행위 혹은 계약위반이며 대부분은 채권채무 관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채무자의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의지와 상환 능력이다. 상환 능력이 있으나 상환 의지가 약한 채무자에게 소송 청구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승소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권리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는 증거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기본적인 소송 경비 부담 능력이 필요하며, 상대의 재산 상태 파악도 필요하다. 승소하였으나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소송 초기에 상대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필요하다. 부정 부패 때문에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으나, 공정한 판결문이 의혹이 가는 판결문보다 훨씬 많으며, 법리상으로 정당한 입장에 있는 당사자가 승소할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협상해서 합의가 가능하면 합의하는 것이 승소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협상이 결렬됐을 때 소송은 불가피해지며 소송을 하면 원고이던 피고이던 반드시 승소해야 한다는 소송의 속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패소하기 위하여 소송을 하는 사람은 없으니 소송의 목적은 당연히 승소이다. 따라서 승소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최선을 다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소송이며 승소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 합의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





이병수와 함께하는 보험교실



지난 호 말미에 약속한 바와 같이 해외동포로서의 우리에게 보다 적합한 생명보험 상품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를 과제로 하여 제 나름대로 맞춤형 설계를 제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노파심에 다시 변명조로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바는, 저에게도 생명보험은 계약자의 한 사람으로서 필요에 의하여 독자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깊게 연구해본 정도일 뿐 여러분에게 최선의 선택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는 되지 못한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리고 싶네요.

그럼, 해외동포로서의 우리의 처지를 최대한 감안하여 생명보험의 구성과 가입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몇 가지 초점을 중심으로 살펴볼까요?

누구를 위한 보험인가? - 나 또는 가족?

생명보험 가입의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위해 들것인가... 즉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생명보험의 보험사고 형태는 이제 감을 잡으셨지요? 보험사고 형태를 최대한 축약하면 ‘사망’ 또는 ‘치료’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때 ‘사망’에는 ‘후유장해’가 부가적으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 ‘치료’의 경우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 및 질병으로 인한 치료로 다시 세분할 수가 있지요.

이 경우 ‘사망 또는 후유장해’는 보험증서에

명기된 ‘보험수익자’가, ‘치료’는 보험증서에 명기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여기에서 보험가입 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 하나! 보험료를 지급하는 주체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의 객체인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서상에 반드시 특정인을 기재하여야 하나 ‘보험수익자’는 특정인을 기재하여도 되고, 기재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으로 ‘법정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호에 실린 실제 보험가입 예를 하나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지요.

1. 무배당 수호천사2002 종신보험
 - 주피보험자 : 000(본인)
 - 보험기간 :
 - 종신 / 보험료납입기간 : 65세까지
 - 보장내용 : 사망보험금 10,000만원
 - 재해치료특약 1,000만원
 - 무배당소득보상 1,000만원
 - 종신입원 1,000만원
 - 수술보장 1,000만원
 - 암보장 특약 2,000만원
 - 재해사망특약 10,000만원
 - 의료보장특약 1,000만원
 - 자녀보장특약 1,000만원

상기 계약에서 보험수익자의 내용은 명시 되지 않았지요? 이 경우 ‘주피보험자’ 본인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 시에는 누가 보험수익자(보험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 자)가 될까요? 제가 위에서 밝혔듯이 ‘법정상속인’ 이 되어야 하는데 민법상 제1 상속인인 배우자가 보험수익자가 되겠지요.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어 보험수익자가 되어야 하구요.

만약 ‘주피보험자’ 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된다면 입원비며 수술비 등 치료비는 누가 보험수익자가 될까요? 당연히 살아있는 ‘주피보험자’ 자신이 되어야겠지요.

이처럼 생명보험은 누구를 대상(피보험자)으로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보험수익자) 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금액은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두 번째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보험가입금액, 즉 ‘사망보험금’ 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통상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가입금액’ 으로, 생명보험에서는 ‘사망보험금’ 으로 표기하는데 약간의 의미상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의 책정은 두 가지의 고려요소를 감안하여야 합니다. 즉, 내가 부담할 수 있는 납입보험료의 수준과 보험수익자의 안정적인 생활수준을 함께 검토하여야겠지요. 두 가지 요소는 서로 반대급부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하면 사망보험금이 낮아져 가족의 안정적 생활이 위협받을 수 있겠지요.

통상 한국에서는 각 생명보험회사의 사망보험금

가입한도는 3억 원 정도로 제한되어 있고 이론적으로는 2개 이상의 회사에 복수가입이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각 회사별 언더라이팅 정책에 따라 복수가입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보험회사가 ‘생명보험협회’ 라는 단체를 매개체로 하여 전산망을 통합 및 공유하고 있어 어느 회사에 가입된 계약내용도 모든 회사 정보망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생명보험회사들이 생명보험에 대한 복수가입을 제한하는 이유는 소위 ‘Moral Hazard’ 또는 ‘Moral Risk’ (도덕적위험)의 방지차원에 따른 것이지요. 즉, 처음부터 (사망)보험금을 수취할 목적으로 생명보험을 여러 개 회사에 가입하였다가 고의적인 사망사고를 일으켜 거액의 보험금을 수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이랍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보험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이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보험제도가 악용됨으로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선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명시적, 묵시적 약속인 것이지요.

따라서, 내가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보험가입금액(사망보험금)을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을뿐더러, 가입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도 커지기 때문에 나의 경제적 여건 하에서 가입이 허용되는 최고수준의 보험금을 책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쉽지 않은 요소가 될 것입니다.

경제적 자립능력이 현재로서는 없는 부양가족을 지닌 가장으로서 본인의 생명보험 가입시 사망보험금 책정은 중요할 수밖에 없음을 거듭 강조하게 되는데요... 가장이 사고로 또는 질병으로 사망시 부양가족이 경제적인 자립도를 갖출 때까지의 상당기간 동안 생계수단은 거의 생명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사망보험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

문입니다. 저축 또는 부동산 등의 수단으로 불러 놓은 자금이 있을 수 있지만 저축은 보험에 비해 막대한 자금이 평소 투입되어야 하고 부동산은 환금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만큼 효율적인 가족들의 생계수단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요.

생명보험회사들도 인격적으로는 차별할 수 없는 사람을 보험계약자로서는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차별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회사별 보험가입 한도 3억 원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즉, 보험계약자의 나이, 성별, 직업, 생활수준, 사회적 지위 등의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책정하기 때문에 보통 능력을 가진 서민들로서는 원한다 하더라도 최고 한도의 보험금 책정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은 더욱 차별을 받아서 같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주 한국인들보다 보험가입금액의 제한을 더 받고 있는 실정이지요. 지금 한국에 가서 생명보험계약을 하려 하면 1억 원 이상의 보험금책정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적정한 사망보험금을 채우기 위해서는 본의 아니게 여러 개 회사에 복수가입을 해야 할 수도 있음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재외국민들에게는 생명보험 가입시 또 하나의 차별이 존재합니다. 한국 국내에서는 소위 ‘무진사보험’ 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상품화되어 있습니다. ‘무진사’ 라는 용어는 전문의료기관의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보험가입절차의 하나인 건강검진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대신 보험료를 약간 할증하여 내면 되는 보험을 ‘무진사보험’ 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재외국민들이 한국에 가지 않고 거주지에서 무진사보험을 들려고 하면 보험가입금액의 한도가 턱없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검진을 하면 1억 원 이상의 보험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무진사보험을 택하면 5천만 원도 채 안 되는 보험가입금액으로만 계약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독자 여러분 중에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상으로 생명보험 가입을 위해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의 두 가지 요소들에 대해 해외동포의 관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나머지 고려요소들에 대하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S) 보험에서 어떠한 경우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딱 한 가지 고의적 사고만은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현실적인 문제를 떠나서 보험의 이론적인 설명에 국한된다는 점을 전제로 답을 드리죠. 생명보험에서는 ‘자살’ 이 보상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보험의 제1원칙인 고의적사고 측면에서는 자살도 고의이므로 보상이 될 수 없는데 실무적으로는 허용이 되기도 하는 사고이지요. 단, 대부분의 상품은 보험계약 가입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의 자살에 한해 보험금지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설령 고의적인 사고(자살)를 염두에 두고 보험가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2년 동안 성실하게 매월 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자는 고의적인 사고(자살)의 개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보험의 경험적 고찰과 통계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지요. 삶을 비관하여 자살을 결심한 사람도 약관규정 때문에 2년 동안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납입한 후에는 어느 정도 경제적 여건도 좋아지고 삶에 의욕과 희망이 되살아나게 된다는요?





웃음의 법칙

허영순
번역작가(KBS WORLD INDONESIA/OKTN)
자료제공 KBS WORLD INDONESIA . KORIDO

5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맞는 성탄절 거리에서 더 이상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슬람국이라는 편견 때문에 아예 포기 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 우리들 성탄절 전야(前夜)는 참 설레었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의 낭만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새벽송을 돌며 아이들 간식을 받고 연인들은 캐롤송 흐르는 거리로 나와 서로에게 기쁨의 선물을 하고... 나누고... 지금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때 어떤 추억을 만들어 가고 있을까요?

20세기 들어 주로 크리스마스이브 때 기독교인들이 마을을 돌며 캐럴을 불렀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이 풍습이 동네를 떠돌썩하게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캐럴은 대체로 찬송가였습니다. 대표적인 노래가 독일의 교회에서 만들어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캐럴은 복음 성가보다는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루돌프 사슴코’, ‘화이트크리스마스’, ‘실버벨’ 등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또 불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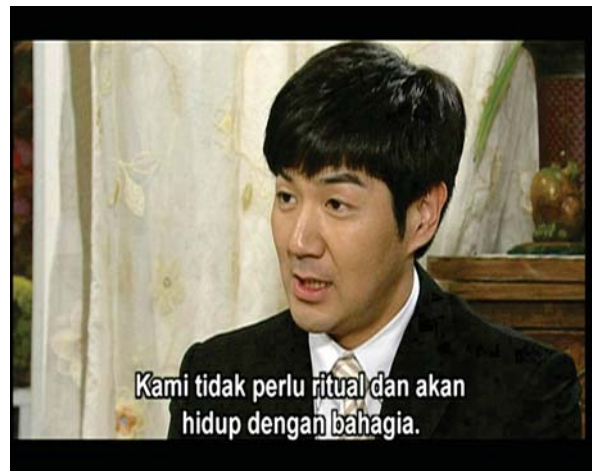
이번 연말 연시에는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며 캐럴음반을 틀어 보시기 바랍니다. 밝은 캐럴은 가라앉은 기분을 상쾌하게 올려주고, 고요한 캐럴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줍니다.

멋진 선율 속에서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모두가 행복한 연말 연시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Tetaplah tersenyum 웃어라 동해아



역시 부모사랑은 어디에도 견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결혼할 예비사위 사법고시에 좋다는 소리를 듣고 법당에서 흠쳐 온 천으로 침침한 눈 비벼가며 속옷을 만들어 주는 엄마에게 사고뭉치 막내딸 세영이 쌀쌀맞게 얘기하며 뺏어갑니다.



Matamu rabun, kau akan kesulitan me nemukan mata jarumnya.

- 눈 어두워서(침침) 바늘귀 못 찾잖아...

Rabun 과 Kabur는 같지만 문장에 따라 다르게 표현합니다.

Rabun : (눈 시력이 흐린), 칙칙한, 어두운
: 시력이 약한 (**lemah penglihatan**) 또는 불분명한 (**Kurang Jelas**) 노안이나 병으로 시력이 약해져서 불분명하게 보이는 경우들에 사용됩니다.

Kabur : **Rabun** 과 같이 불분명한으로,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경우 사용 하지만 날씨가 좋지 않아서 또는 뭐가 묻어서 불분명하게 보이는 경우를 표현합니다. 그외에도 **kabur**는 ‘도주하다, 도망가다’ 라는 뜻으로도 자주 사용됩니다.

👉 **Orang tua itu matanya sudah rabun.**
어르신 시력이 약해졌다.

Tulisan di papan tulis itu kabur.
칠판의 글씨가 뿌옇게 보인다.

Penjahat itu kabur dari penjara.
그 죄인은 탈옥했다. (감옥에서 도주했다.)

Nikahilah Aku 결혼해주세요



부모님이 부자라서 호의호식하며 사는게 미안한 경훈, 성대한 결혼식과 약혼식을 준비하려는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이 본인의사를 전합니다.



Kami tidak perlu ritual dan akan hidup dengan bahagia.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Ritual : 형식, 의식, 격식, 의례적인 것 등을 표현 할 때 사용됩니다.

Formalitas(형식), **seremonial**(의식), 일반적으로 **basa-basi**(예의범절)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이상으로 공손이 대하거나 너무 형식(예의를)을 갖추어 대할 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 중 하나,

Jangan basa-basi 너무 예의 차리지마 또는 **Tidak perlu basa-basi** 예의 차릴 필요 없어

‘너무 형식(절차)에 얽매이지마’ 라고 표현 하실때는 **Jangan ritual** 또는 **Tidak perlu ritual** 라고 하시면 됩니다.

- 너무 격식차리지마. - 격식차릴 필요 없어.

폭력과 착취에 고통 겪는 印尼 이주노동자

기고 : 신성철 / 데일리코리아 발행인

사 우디아라비아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하던 인도네시아 여성이 입술이 잘리는 등 잔인한 학대를 받은 한 장의 사진이 2010년 11월 현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인도네시아에 분노의 물결이 일었다.



입술이 잘리고 이마, 코, 뺨, 턱 등에 심한 상처를 입었으며 머리는 삭발된 모습의 사진 주인공은 서부누사틍가라주(州) 출신 여성 수미아띠(23)다.

수미아띠는 2010년 7월 영어와 아랍어 등 외국어를 전혀 못하는 상태로 월간 미화 213달러에 고용계약을 하고 돈을 벌어 고국의 가족을 도울 수 있다는 부푼 꿈을 안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다.

그녀를 고용한 사우디인은 가위로 입술을 잘라내고 뜨겁게 달군 다리미로 등을 지지는가 하면 가운뎃손가락을 분질러버리고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다리를 두들겨 팬 혐의로 현재 현지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아 사우디에서 역시 가정부로 일하던 서부자바주 출신 여성 꼬말라사리(36)가 구타당한 끝에 사망했고, 그 시신이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사건이 일어나 인도네시아 정부의 자국 노동자 보호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사우디 당국에 이 사건을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도요노 대통령은 수미아띠뿐만 아니라 사우디에 취업하고 있는 모든 인도네시아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즉시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일부의원은 사우디에 인력파견을 당분간 금지하는 제안도 내놓고 있지만 무슬림 형제국 간의 밀접한 정치와 경제적 관계를 고려할 때 성사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 유도요노 대통령은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놴다. 모든 파견 근로자에게 휴대전화를 지급, 도움이 필요하면 즉각 주재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을 연결해 고충민원상당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 아이디어는 당장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한 야당 의원은 “대통령이 얼마나 실상을 잘 모르고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고용주들이 감금하고 여권도 빼앗아버리는 판인데 휴대전화를 갖게 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인도네시아는 해마다 수백만 명을 해외로 내보내고 있으나 정부의 반복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주노동자 보호 유엔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고용주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기초가 되는 쌍무협약도 사우디와 체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인력송출보호국 관계자는 “이 문제는 정부의 잘못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돈벌이에 혈안이 된 송출업체이 안전도 담보하지 않은 채 인력을 밖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곳에서도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이 성폭력과 임금착취,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말레

이시아 당국이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들은 고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을 수입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출신 등 이주노동자 250만여명이 일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말레이시아 이주노동자들은 매우 위험한 근로여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폭행과 성폭력, 강제노동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의 여권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말레이시아 법규정 때문에 노동자들이 여권을 돌려받지 못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것을 우려해 쉽사리 직장을 옮길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고용주가 인도네시아 출신 가정부를 감금, 구타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인도네시아는 2009년 6월부터 말레이시아에 대한 가정부 인력 송출을 중단한 상태이다.

말레이시아에는 약 200만 명의 인도네시아인이 가사노동 및 농장과 건설 인부로 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0만명 가량이 불법 체류하고 있어 이주노동자 문제가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 도화선이 되고 있다.

작년 12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말레이시아 고용주가 인도네시아 근로자 여권을 보관하는 규정 폐지와 일주일에 1번 휴일을 준다는데 합의해 양국간 이주노동자 문제는 일단락 되는 듯 하다.

최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 취업한 인도네시아 노동자는 인구의 2% 가량인 432만명이며 이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연간 75억 달러이고 비공식적인 금액을 합하면 1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될 만큼 이주노동자들의 송금은 주요 외화수입원이다.

2008년 인도네시아 노동이주부 자료에 따르면 자국의 이주노동자는 말레이시아에 200만명, 사우디아라비아에 96만명, 대만 13만명 등 10여개국에서 일하고 있다.

각국별로는 말레이시아 파견 노동자들이 17억 2천만 달러로 가장 많이 송금했고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대만,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의 순이다.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근로자는 3만여명으로 5년전부터 고용허가제가 도입되기 전적으로 국내 근로자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홍콩이나 대만 싱가포르 등 보다 근로조건이 좋은 편이다.

2008년 총 4만5천건의 이주노동자 민원이 접수됐으며, 주로 가사노동자로 일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민원의 7%인 3천여건은 성폭행과 학대 사건이다.

민간인권단체인 PPK의 엔당 수실로와띠 사무장은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함에 따라 이들이 인권유린과 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인력송출회사협회의 루시디 바살라마 사무국장은 “현행 21일간 실시되는 송출근로자 소양교육을 3개월로 늘려 파견국의 언어와 법률 등이 포함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간단체들의 대북 쌀 지원은 신중해야



정진영 (경희대학교 교수, 국제대학원장)

북한 경제가 파산상태에 있고 식량부족으로 많은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북한당국은 선군(先軍)정치를 내세우며 모든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군을 우선시한다. 국민들은 굶어 죽더라도 세습권력의 유지를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군인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북한당국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제공하는 데 심각한 딜레마를 야기한다.

한편으로,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는 현실을 외면하기가 쉽지 않다. 영유아들이나 임산부들마저 먹을 것이 없어서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리고 수많은 북한 동포들이 먹을 것을 찾아 중국으로 탈출하는 상황을 두고 같은 민족으로 동정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당국은 엄청난 자원을 사용하여 군량미를 비축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천안함 폭침·연평도 무력공격 등 우리의 무고한 국민들을 공격하고 영토를 침범하고 있다. 또한 외부의 식량지원이 북한 동포들의 굶주림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기보다 김정일과 그 친위세력의 배를 불려주고 더 많은 자원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한다. 그리고 지원된 식량이 실제로 북한 주민들에게 배분되는

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들과 정치권의 입장이 찬반양론으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사이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한민국은 2007년까지 매년 쌀과 비료를 각각 30만톤 규모로 북한에 지원해왔다. 소위 햇볕정책의 논리에 기초해서였는데, 그 핵심은 대북지원이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정책을 우호협력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공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데 있었다. 사실 김대중·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남북한 당국들 간에 회의를 빈번히 열렸고 이산가족 상봉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며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과 같은 남북협력사업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이러한 남북간의 협력들은 모두 대규모 대북 지원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정부 당국간의 회의나 이산가족상봉을 위해 정부는 쌀과 비료를 위시한 대북지원을 대규모로 제공해야만 했다. 햇볕정책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별로 실속이 없는 회담도 계속해서 열어야 했고, 그럴 때마다 북한당국에 회담개최를 거의 구걸하다시피 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도 북한당국에 외화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했고 연평해전과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같은 침략행위를 지속적으로 감행했다. 김정일과 북한당국은 외부의 경제지원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화하고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대북지

패륜아 김정일과 맞서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각오를...

안득기
(정치학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원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환상으로 북한에 대한 비판을 억제하고 대북 경계심을 느슨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전임 정부들의 이러한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집권했다. 알맹이 없는 회담을 위해 북한에 대규모 경제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했고, 우리 관광객에 대한 총격 피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도 중단했다. 이렇게 되자 북한 당국이 오히려 남북대화를 하자는 데 적극적이 되었고 그 대가로 요구하는 경제지원의 규모도 작아졌다. 세습권력과 체제유지를 위해 외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북한당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지원이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계속해서 비핵화와 관련된 북한의 태도변화가 대화재개에 필수적임을 강조해 오고 있다. 대화를 위한 대화에는 경제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가 올해 북한의 식량생산량이 작년보다 증가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단체들의 대북 쌀 지원은 매우 신중히 고려돼야 하며 무조건적인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다. 자칫 북한당국의 입장만 강화시켜주고 우리정부의 대북전략만 무력화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NGO 및 선교단체의 북 식량지원이 오히려 김정은 후계체제 공고화에 악용되어 북한주민의 고통이 지속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김정일과 북한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을 조금이라도 돌보게 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는 동포애보다 전략적인 인내가 필요하다.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에 해안포와 방사포 등을 통해 170여발의 포탄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의 무차별 포격으로 현재까지 군인과 민간인 4명이 사망하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과거 북한의 대남 군사적 도발은 휴전선과 서해 5도 해상지역에서 군장병과 군함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번 연평도 포격도발은 6.25 이후 우리 영토에 대한 최초의 직접 공격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노골적인 위협성을 드러내 보인 도발행위이다.

천안함 공격에 이어 이번 북한의 도발행위는 대량인명살상용 다연장 로켓포인 122mm 방사포를 민간인 밀집지역에 집중 발사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민간인 대량살상을 노린 반인륜적인 행위이며,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잔혹한 전쟁 범죄행위이다.

북한은 지난 1월과 8월에도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해상을 비롯한 NLL 남쪽 지역으로 해안포를 발사했으나 육지에 도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및 남북불가침 협정을 위반한 것이며, 민간인에 대한 군사공격 금지를 규정한 제네바 협약 등 국제적인 규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북한은 이중의 탈을 쓴 매우 교활한 행동을 되풀이 하고 있다. 북한은 사태 직후 최고사령부 명의



와칭! 코리아

의 ‘보도’를 통해 우리 측이 먼저 군사적 도발을 해 대응조치로 연평도에 해안포 공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처사에는 자신들의 조급성과 긴박함을 숨기지 못하는 정신병력이 숨어있다. 늘 그래왔듯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 어떤 조약도, 협정도 일방적으로 무시해 버리기 일쑤다. 얼마 전에는 방북한 미국 과학자에게 우라늄탄을 만들 수 있는 원심 분리기를 공개해 그동안 국제사회와 맺어온 핵 합의를 아주 가볍게 무시해 버리기까지 했다.

그 동안 북한은 천안함 도발이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상황반전을 노리면서 잠시 숨죽이고 있었다. 대북관련 발언의 수위가 낮아진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이후 북한은 6자 회담 참여의사를 밝히는 등 대미평화 공세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주변 국가의 시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늘 제멋대로의 행동을 취하는 예측불허의 국가이다. 군사도발까지 일으켰다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평화공세 전환으로 돌아서는 이중적 얼굴을 가진 국가인 것이다.

북한의 천안함 도발과 마찬가지로 이번 연평도 도발 역시 3대 세습 후계체제 구축과 명백한 연관이 있다. 잇단 핵위협을 통해 정치·경제적 대가를 얻어내려는 노력이 실패하자 이에 대한 반발의 표시이자, 남한과의 군사갈등을 촉발시켜 위기를 조장함으로써 3대 세습에 대한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의도가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북한은 3대 세습 구축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경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3차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 서

해해상에서의 함대간의 교전, 우리 어선 나포, 북한 해안포의 NLL 남쪽으로의 대량 발사, G20 정상회의 이후 한국의 국격을 훼손시키기 위한 테러와 같은 도발도 예상할 수 있다. 혹은 우리 사회내부 일상생활의 혼란을 조성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를 감행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일은 아들의 후계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더욱 호전적으로 변하고 있다. 더욱이 김정일은 각종 대북제재로 인해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경제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조급성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급성은 바로 김정일 자신의 건강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으로 후계체제의 조기안착과 경제난 해결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김정일은 더 이상 국제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고립된 상태로 자신을 꾸려나가야 한다. 더 이상 국제사회와는 협력적이지도 않고, 조화롭지도 않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와 안정된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희망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는 지금 3대 세습을 위해서라면 무차별적인 민간인 학살도 서슴지 않는 정신병자들인 김정일 부자와 마주하고 있다. 앞으로 왜냐하면 북한이 후계체제 구축에 대한 조급성으로 인해 어떤 일을 또 벌일지 알 수 없다. 이러한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보호하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선택은 명백하다.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어떠한 위협이나 도발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국론분열 획책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동포사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1. The Plaza Office Tower 로비에서 신분증과 출입증을 교환하고 나서 Mid 라고 표시된 엘리베이터에 오르면 된다.
2. 30층에 위치한 영사과. 민원편의제공을 위해 층전 보다 넓혔다.
3. 영사과 복도 맞은 편에 위치한 대한민국대사관.
4. 2013년 완공될 예정인 대사관 신청사 모습.

대사관 임시청사 안내

- 업무시작일 : 2010.7.26(월) 08:30부터
- 주소 : The Plaza Office Tower, 30th Floor(30층)
Jl.H.M. Thamrin Kav.28-30, Jakarta Pusat 10350
- 대표전화 : (021) 2992-2500
- 대표팩스 : (021) 2992-3131
- 영사과 직통전화 : (021) 2992-3030
- 영사과 직통팩스 : (021) 2992-1700
- 당직직원 휴대전화 : 0811-852-446 (중전과 동일)



이용 안내

○ 일반절차

- 1층 로비 왼편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과 교환
- 인도네시아 이민청 발행 신분증인 KITAS 또는 KITAP
 - 인도네시아 경찰청 발행 외국인 등록 관련 신고증 (SKLD)
 - 인도네시아 운전면허증 (SIM)
 - 대한민국 여권
 - "MID"라고 표시된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 설치된 출입문 센서에 출입증을 대고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이용 대사관(30층) 도착
 - 대사관 용무를 마친 후,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출입증과 신분증 교환

○ 예외절차

- <신분증이 여권만 있고, 영사과에 여권업무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안내데스크에 여권을 제시하면, 안내데스크 직원이 여권을 복사하고 출입증 발급
- <여권도 없고, 신분증이 전혀 없는 경우>
- 안내데스크에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 안내데스크 직원이 대사관 영사과에 통화, 영사과 직원이 내려와서 30층으로 안내

○ 기타사항

- 출입증을 분실하는 경우, Rp.150,000을 변상해야 하므로 대사관 용무를 마친 후 출입증을 반드시 1층 안내데스크에 반납 요망.

KOICA(한국국제협력단) 인도네시아 사무소 이전 안내

- 주소:
The Plaza Office Tower, Unit E 20th Floor(20층)
Jl. MH. Thamrin No. 28-30, Jakarta 10350
전화: (021) 2992-1900, 2992-2100, 2992-2101
팩스: (021) 2992-2102(KOICA), 2992-2103(KJE)

이용절차:

- 건물로 들어오신 후 안내원에게 방문기관 및 층수 (KOICA, 20층)를 이야기하고 신분증을 맡긴 후 출입증을 받습니다."
- 총 3개의 건물중 LOW 라고 적혀있는 건물로 향하여 출입증을 출입 센서에 대신 후 들어오시면 됩니다.
- 백화점과 The plaza building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2012년 4월 11일, 재외선거가 실시됩니다

재외선거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Q: 재외선거란?

A: 재외국민도 2012년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외국에서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다.

외국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여하고자 하는 선거의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의 기간 중에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한다.

투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25일까지 발송한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와 여권을 가지고 공관 또는 공관 대체시설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가서 정당의 명칭이나 기호, 후보자의 성명을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하면된다.

기표된 재외투표지는 국내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진 후 개표과정을 거치게 된다.

Q: 외국에서 재외선거관리는 누가?

A: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모든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관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재외투표관리관을 상시적으로 두어 재외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모든 재외공관(분관 또는 출장소 포함)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재외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관마다 상시적으로 재외투표관리관을 두는데, 해당 공관의 장이 당연직으로 재외투표관리관이 된다.

2012년 재외선거 일정표

사무일정	실시사항	제19대 국선	제18대 대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11. 10. 14.~'12. 5. 11.	'12. 6. 22.~'13. 1. 18.
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등록신청(공관 경유)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11. 11. 13.~'12. 2. 11.	'12. 7. 22.~'12. 10. 20.
	국외부재자신고(공관 경유) <구·시·군의 장에게>		
선거일전 49일부터 선거일전 40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12. 2. 22.~'12. 3. 2.	'12. 10. 31.~'12. 11. 9.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39일부터 선거일전 35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12. 3. 3.~'12. 3. 7.	'12. 11. 10.~'12. 11. 14.
선거일전 30일에	재외선거인명부 확정	'12. 3. 12.	'12. 11. 19.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25일까지	재외투표용지·재외선거안내문 등 송부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신고인에게>	'12. 3. 17.~	'12. 11. 24.~
선거일전 24일부터 선거일전 23일까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	-	'12. 11. 25.~'12. 11. 26.
선거일전 15일부터 선거일전 14일까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12. 3. 27.~'12. 3. 28.	-
선거일전 14일부터 선거일전 9일까지	재외투표 (6일 중 정하는 기간)	'12. 3. 28.~'12. 4. 2.	'12. 12. 5.~'12. 12. 10.
선거일	개 표	'12. 4. 11.	'12. 12. 19.

한인동포자녀 무료건강검진

사랑의 전화 운동본부는 인도네시아산업의학회와 더불어 한인동포자녀 무료건강검진(X-Ray, 혈액-소변 검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한국국제학교에 이어서 1월부터 매주 토요일에 다른 학교 재학생에게도 실시합니다.

지 역: Kelapa Gading(1월8일), Cibubur(1월15일), Tangerang(1월22일), Bandung(1월28일)
Cikarang, Jakarta, Bogor - 2월 중

출국세 제도 폐지 안내

1.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동안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거,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출국세(Fiscal Tax) 제도가 2010.12.31부로 시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1.1.1부로 출국세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따라서, 그동안 출국세 납부대상자가 출국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대사관에서 '가족관계 서류에 대한 영사확인'을 받아 공항에 제출하였으나, 2011.1.1부터는 이러한 절차 없이 출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니 테러 정세 관련 안내문

1. 인니 對테러 당국은 최근 수마트라주와 반텐주 일원에 근거지를 두고 테러행위를 계획 중이던 제마이스라미아(JI) 소속 세포조직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2.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들 테러조직은 수마트라주에 소재한 외국계 회사 임원 및 반텐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무차별 납치하여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현장답사까지 마친 것으로 밝혀진바, 교민들께서는 상기 지역 등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경우, 단독 행동 및 취약지역 방문 자제 등 신변 안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이달의 시

박경자

바람의 편지

열대야를 건너온 바람
문을 두드린다
바람소리 파도 같다

내 안에 잠들었던 은밀한 열정이
동해바다를 향해 쏟아져 쏟아진다
나도
바람도
덜컹거리는 풍경을 따라

흔들린다
흔들거린다

바람이 있는 풍경
적도를 넘어온다
낮선 땅을 기웃거리는 은빛바람
비릿하다
야자수 잎사귀를 흔들며
바람이 젖는다
아무도 모르게 바람이 젖는 동안

멀리서 파도가 친다

시작노트

열대지방에서의 바람은 언제나 감동적이다. 그 감동의 내면에는 추억이 있고 그리움이 있다. 나의 동해바다는 고스란히 그리움이 되었다. 바람이 속삭인다. 덜컹거리는 완행열차에 몸을 실으라고. 그곳은 지금 가을이라고...



박경자 시인 2005년 등단
창원문협회원
가락문학회원

일반부 우수상 (인니문화연구회장상)



야자수

김명숙

나는 지금 야자수 그늘 아래 서 있다. 곧고 시원하게 뻗어있는 이 나무를 나는 꽤나 좋아한다. 단단한 시멘트로 덧칠을 한 듯 견고하고, 강렬한 적도의 태양 아래 쪽 뻗어있는 나무의 자태는, 조나단의 “갈매기의 꿈”을 연상시키듯 드높은 위상을 지녔다.

벌써 16년이 흘렀다. 지나온 세월의 한고비 고비마다 흔들리는 나에게 신념을 갖게 해주었던 이 땅과 그 야자수 초록의 힘은 늘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거였다. 1995년 1월23일은 내가 인도네시아에 첫발을 내딛은 날이다.

내 나이 스물일곱, 나에게 이곳은 정말 호기심 천국이였다. 우연히 올려다본 인도네시아의 하늘조차도 정말 손에 닿을 듯이 가깝게 느껴졌었다. 난생처음 우리나라의 가을하늘이 정말 드높고 푸르다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여기저기 모를 심는 사람들과 허수아비, 모두가 어디선가 본 듯한 낯익은 풍경으로 다가왔다. 도로 양쪽으로 줄지어선 야자수 나무는 가히 장관이였다.

그렇게 1시간 30분을 달려서 내가 도착한 곳은 짜깁이라는 마을이였다. 이슬람사원 바로 앞에 지어

진, 시골집치고는 꽤나 큰 집이였다. 새벽5시가 되면 우리 집을 향해 있었던 커다란 확성기로 이슬람의 기도소리가 어김없이 들려왔다. 참으로 신기했던 것은 견디기 힘들던 그 기도소리가 1년이 지나자 자장가 처럼 편안하게 들려왔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었던 그곳에서 2년 후 찌까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내 나이 스물아홉, 첫 아이가 태어나고 회사를 다니던 남편이 어느 날 “사업”을 하고 싶다고 선언했다. 처음에 반대를 했지만 남편의 뜻이 너무 완강했다. 그래서 남편은 회사를 다니고 남편의 첫 사업의 시작인 식당을 내가 맡아서 하기로 했다. 하지만 두려웠다,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고 무엇보다 아직 어린 첫아이가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무언가 도전해보고자 했던 열망이 강했던 남편의 꿈을 저버릴 수 없었다.

“그래 해보는 거야! 할 수 있어. 나도 꼭 할 수 있어!”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남편의 회사생활로 모은 돈과 한국에서 친지들한테 빌린 돈으로 식당을 시작했다. 그러나 너무 순조롭게 일이 진행된다 싶더니 앞곳은 운명이 나를 시험대에 올리려는 모양이였다.

3개월 후 IMF가 터졌다. 마치 어린 시절 손에 꼭 쥐고 있던 풍선을 모두 놓쳐버린 듯 허탈하고 허망한

심정이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울고 있는 첫아이를 안고 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아이를 더 힘껏 끌어안으며 다짐했다.

“반드시 일어서고야 말거야!”

아이는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어느새 울음을 그치고 방긋 웃고 있었다.

그때 창밖으로 보이는 야자수 한 그루가 내 눈 안에 들어왔다. 나는 넋이 나간 듯 한참을 바라보았다. 나도 모르는 힘이 용솨음치는 것 같았다.

“그래, 깨끗하게 이겨내는 거야. 네가 낳, 아니 우리 가족을 지켜주렴, 이 땅을 깨끗이 지켜왔었던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남편의 판단이 옳았음을 알았다. 반드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거라고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했던....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리고 얼마 후 임신 2주째라는 기쁜 소식도 병원에서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듬해 1998년 5월, 또 한 번의 거대한

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소요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고 나라 전체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난생 처음 겪는 믿지 못할 광경에 나는 경악했다. 판단이 서질 않았고 판단을 할 수도 없을 만큼 순식간에 일어난 눈앞의 사태에 몹시 두렵고 한치 앞을 가늠할 수가 없어 답답하기만 했다. 루꼬 안에 있었던 식당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탱크와 함께 배치돼 있었다. 전시상황과 다름바 없었다. 집밖을 나가는 것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었으며 남자들만 현지에 남아있고 나머지 아이들과 노약자는 한국으로 철수해야 할 만큼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쌀과 라면 등 식량을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사태가 악화될수록 어쩔든 여기를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집에서 공항까지가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는지 모른다. 위기의식을 느낀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차원에서 특별기까지 띄워 교민들을 보호한다고 나섰다. 공항 안에는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마치 국제난민보호실을 연상시킬 만큼 혼잡했다. 7시간을 기다려 겨우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러나 한국에 도착한 순간 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소식을 접해야 했다. 아이가 유산 되었다. 나는 한동안 넋을 잃었다.

그로부터 1달 후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왔을 때 언제 그런 소요사태가 일어났나 싶을 만큼 거짓말처럼 평화롭고 조용한 일상이었다. 몇몇 건물만이 불에 타 앙상한 모습을 드러낼 뿐이었다. 나를 반겨주는 건 어김없이 깨끗하게 버티고 서서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야자수와 낙천적인 이 땅의 사람들이었다. 우선은 거의 두 달 가까이 문을 닫았던 식당을 대청소하면서 다시 나의 일상이 시작되었다.

이 모든 일이 한바탕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아니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가슴을 쓸어내렸다. 너무나 순식간에 닥친 일들이었다.

그 일들이 나에게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던 새로운 계기가 되었던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어쩌면 단지 타국에서 잠시 살아가는 “이방인”의 삶에서, 여기 이 땅과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생활 속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하면서 말이다.

이들 역시 우리나라의 문화를 거부 없이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의 사람들이다.

나는 나의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누구보다도 뿌리 깊게 대한민국의 민족성과 자긍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다. 그러나 이는 “정신”의 문제인 것 같다. 그 정신만큼은 유지를 하되 열린 자세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것 역시 결국은 내 나라 사랑의 한 방법일 것이다.



수상소감

인도네시아는 나에게 참 매력적인 나라다. 해질녘 언덕에 올라서면 드넓은 별판위로 보이는 자카르타의 붉은 노을은 눈이 부시다. 내 앞에 펼쳐진 저 거대한 자연은 마치 두고 온 내 고국의 어머니의 품 같기도 하다. 그리고 가끔씩 생각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기도 한다.

꿈결인 듯 아닌 듯, 어릴 적 숲길에서 들은듯한 맑고 청아한 새소리에 잠을 깰다. 전화벨... 당선소식이었다. 창문 밖 세상은 벌써 아침을 서두르는지 분주하고 내 시야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손님인 초록빛 이파리들은 오늘 작심을 한 듯 깨어있었다.

늘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고 싶다. 그 빛을 잃지 않으면서 열정으로 길을 걸을 것이다. 그 길이 비록 좁아 보여도, 아무리 멀어 보여도 계속 걸어나갈 것이다. 부족한글 뽑아주신 심사위원과 생각을 옮겨 적을 수 있도록 믿음과 격려를 해준 남편, 그리고 두 딸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한다.

지나고 나서 보면 1997년, 1998년, 서른 살 즈음 그때 내가 겪었던 그 일들이 어쩌면 철없던 나를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 주면서 일깨워 주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저 뜨거운 태양 아래 곳곳하게 버티고 서 있으면서도 푸름을 잃지 않는 “야자수의 힘”이었을 것이다. 언제나 “야자수”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고 다시 의지를 불태웠기 때문이다.

일하는 엄마 때문에, 품에 안고 책 한 번 제대로 읽어주지 못해서 늘 마음에 걸렸던 큰아이와 인생의 큰 강을 건너고 나서 그 다음 해 태어난 둘째는 어느새 훌쩍 자라서 jiks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얼마 전 JIKS의 교목이 “야자수”인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아니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교민 아이들이 꿈은 크고 높게 하고, 굳은 의지로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곧고 푸른 야자수처럼 자랐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멀리 내다보고 높은 곳에서도 늘 주변을 항상 돌아 볼 줄 아는 소박하고 넉넉한 품성을 겸비한 세계 속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분주함 속에서 여유를 흠치기까지

이경 김 선 영(자필묵연 회원)

정말 오랜만에 실컷 잠을 잤다. 그 바람에 약속시간에 늦어 부랴부랴 서둘러 차를 타야 했다. 마음은 급한데도 내가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것과, 운전을 하고 있는 소빠르를 의식한 것은 동시였다. 멋쩍었다. 차창에 머리를 쿵쿵 두 번을 박아냈는데 그야말로 두 번 민망한 꼴이 되었다.

전시회를 무난히 끝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를 붙잡고 늘어지며 짓누르기까지 했던 이사를 끝내고나니 날 것 같은 마음이었다. 올 한 해가 다가오는 것을 알려주는 아쉽고 후련하게 끝난 제6회 자필묵연전은 <분주 속에 흠친 여유>였다. 약간은 노란색을 발산하는 조명등이었다. 그 빛을 받으며 쪼르르 걸린 전시장의 작품들이 제법 이쁜 모습들이었다. 관람을 온 친구가 “참 보기 좋았더랬다”고 전했다. 또 전시장에 내 작품을 걸어 놓고 친구의 마음을 으쓱하게 하려면, 그리고 내가 아주 잔잔한 미소로 동호인들의 작품을 감상하려면 일 년이나 기다려야 한다.

나는 자필묵연 회원으로, 문방사보를 대한 지 이 년 밖에 안 된 신참내기다. 그러나 이번 전시회에서 바로 그만큼의 또 다른 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평소엔 어느 한 곳에 매여 있는 것이 싫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늘 도망다니기 바쁜 나였는데 용케도 버텨내고 있다. 이번 전시를 맞이하여 작품도 석 점이나 거뜬히 해냈다. 하필 전

시작품 준비기간 중에 대사(?) 중의 대사인 이사가 가는 일이 겹쳤는데도 말이다.



사람 사는 일, 공평하게 줄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려들면 그저 거기서 거기러니 했었다. 그런데 막상 일에 다쳐보면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님이 여실히 드러나는가 보다. 이사와 같은 다양하고 분주한 일을 만나면 더욱 그렇지 않나 싶었다. 내 집 이사를 하면서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자주 떠올렸다. 박수를, 큰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일어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분들에게 박수를 쳐드리지 못하고 전시작품 덕에 내가 박수를 받았다. 이사를 하면서 주체하기 어려웠던 답답함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작품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었다. 인재 선생님의 멈추지 않는 체근이었다. 다시는 이사가 지 않겠다는 호언과 장담을 하는 한편으로 다음 전시에는 내가 어떤 작품을 해낼 수 있을지 기대하게 되는 아이러니라니.

전시 제목처럼 분주 속에 여유 한 번 제대로 흠친 셈이다. 따지고 보면 전시가 있기까지 인재 선생님의 지도와 함께 공부를 하는 반동무들의 힘이 크다. 물론 사랑받는 남편의 격려와, 모범을 보여주고 싶은 대상 사랑하는 내 아이들의 존재야말로 큰 몫의 배경이 아닐 수 없다. 이사를 하는 일은 지난한 일이었지만 새롭게 꾸며진 집이 기다리고 있었다. 작품을 하는 것 또한 과정에서는 고된 작업이었지만 한아름 보람으로 나를 즐겁게 했었다.

함께 붓을 잡고 그 시간을 즐기는 반동무들과 자필묵연 회원들, 전시장을 찾아 주시고 격려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모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한·인니문화연구원 제8회 열린 강좌

“지금도 살아 숨쉬는 쑤바섬의 지석묘 사회”



기조강연 :

인도네시아의 선사문화와 지석묘 - 임영진(전남대학교 교수)

발표 :

쑤바섬의 지석묘 - 가중수(일본 슈지츠대학 교수)

쑤바섬 지석묘의 형식변천과 사회변동 - 조진선(전남대학교 교수)

쑤바섬 지석묘 사회를 통해서 본 한국 지석묘의 장송의례(윤호필 경남발전연구원)

쑤바섬과 한국 지석묘사회의 비교 - 이동희(순천대학교 학예관)

주제 : 인도네시아 지석묘와 한국의 지석묘

일시 : 2011. 1. 30. (일) 오후 4.00~6.30

장소 : 한인회문화회관(도서관)

-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며 역사학자와 역사적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이다. 사실을 갖지 못한 역사학자는 뿌리가 없는 존재이고, 역사학자를 만나지 못한 역사적 사실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영국 사학자 E H 카

한국의 지석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받아 국민적으로 관심이 많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묘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석묘는 선사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석묘 문화와 관련이 있다는 학설이 제기되었고 인도네시아 쑤바섬의 지석묘는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나라 지석묘가 어떻게 만들어 졌고 어떤 장례가 이루어졌는지 알려주는 귀중한 사례입니다. <지상 마지막 지석묘 사회>라고 하는 쑤바 섬, 돌멘의 축조 과정(채석, 운반, 축조, 장의)은 한국의 지석묘 연구에 시사 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석묘를 세계유산으로 가진 우리가 인도네시아의 지석묘 발굴 조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지석묘 연구에도 중요할 것이며 한국고고학이 국제교류와 국제친선에도 기여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고학은 목적지 없이 영원히 계속되는 탐구여행입니다. -

고고학이 갖는 근본적인 사료의 가치(오리지널리티의 힘) 때문에 현대에 고고학은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나온 궤적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궤적을 지석묘에서 찾아보기 위해.....

후원 :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 한나프레스

191회 - 192회 한인회 인니문화 연구회 문화탐방

일 시 : 2011년 1월 12일(수) - 13일(목), 12일 6시 30분 한인회에서 출발

탐방지 : 가룻 / 썬위데위

연락처 : 신유희 0818-708-228 / plentyhoki@yahoo.co.kr

사공경 0816-190-9976 / sagong@hotmail.com

문화회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인사회의 문화활동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개관한 한인회 '문화회관'은 작지만 쾌적한 공간에 교민들께서 보내주신 양서들이 있고, 차 한잔의 여유를 음미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한국과 인도네시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청각 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우측 도서관 이용안내 참조

[휴게실]

TV시청, 신문, 잡지, 도서 열람 가능

[소규모 모임]

각 문화단체 및 세미나, 동우회 등 소규모 모임 장소대여 가능



한인회 도서관 이용안내

★ 이용 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 이용 대상

한인회 회원증 소지자

(* 한인회원 가입은 한인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세요.)



★ 대여 방법

가. 회원증 사본 제출

나. 보증금 Rp.200.000 (요청 시 환불가능)

다. 대여 권수 및 기간
- 도서 2권 / 기간 7일

라. 대여 기간 연장
-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기가 가능 합니다
- 전화 및 직접 방문

마. 반납 연체 및 분실 시
- 연체일수 만큼 대출정지 또는 1일 1책당 Rp.1000 부과
- 분실 시 실비 변상

한인회 특별활동 및 강좌 안내



인도네시아어 강좌

강의시간 : 매주 화/목요일, 10:00~12:00.
강 의 실 : 한인회 2층
지도강사 : 안선근 교수
연 락 처 : 521.2515 / 0816.1883.224

인도네시아 문화탐방

자카르타 소재 40여개의 박물관과 30여 곳의 유적지,
갤러리, 레스토랑 탐방과 전시회 등 관람.
한·인니문화연구원 : 사공경, 신유희
연락처: 사공경 (0816.190.9976) 신유희 (0818.708.228)



월화차회

모임일정 : 매주 화/목요일, 10:00.
강 의 실 : 한인회 강당 1층
연 락 처 : 720.4211 / 0818.491.325

한국어 강좌

강좌시간 : 매주 토요일, 09:00~13:00
대상 : 한국인업체 인니종업원 및 인니인
강의실 : 한인회 2층
연락처 : 521.2515 / 0815.1177.1899



꽃꽂이반 개강

매주 화요일
시 간 : 09 : 00 ~ 11 : 00.
장 소 : Taman Gandaria C-23
연락처: 021)739.6444
hp : 0811.834.026

(사) 한국 꽃예술작가협회 루시 플라워회
회장 최 정 순

2011년 1월 공지사항

가루다항공 탑승객에 대한 기내출입국심사(IMMIGRATION ON-BOARD) 시행

인도네시아 이민청은 2010. 09. 01부로 서울-자카르타 행 Garuda항공 탑승객에 대하여 기내에서 도착비자 발급 및 입국심사를 완료하는 기내출입국심사(IMMIGRATION ON-BOARD)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기내출입국심사제도(IMMIGRATION ON-BOARD)는 인도네시아 이민청 직원 2명이 서울발 자카르타행 Garuda항공에 탑승하여 기내에서 우리 국민 등 승객에게 도착비자를 발급하고 입국심사를 완료한 다음 이를 증명하는 입국심사완료카드(IMMIGRATION CLEARANCE CARD)를 교부하며, 동 절차를 마친 승객은 도착지인 수카르노하따공항에 별도로 마련된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완료카드(IMMIGRATION CLEARANCE CARD)를 이민청 직원에게 반납함으로써 입국절차가 완료됨.

동 제도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인천공항 Garuda항공 체크인카운터 옆에 마련된 도착비자수수료 납부 창구에서 도착비자수수료(25불)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 기내에서 이민청 직원에게 제시하여야 함.

동 제도 시행으로 수카르노하따공항에서 도착비자 발급 및 입국심사를 받기 위한 만성적인 대기시간(최대 2시간 정도)을 없애 당지 입국에 따른 불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한편, 당지 이민청은 동 제도의 시행 경과를 보아가면서 인천공항-발리 행 Garuda항공 탑승객에 대하여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한인회 무료 법률상담 안내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4시(1시간)

장소 : 한인문화회관 1층 상담실

Jl. Jend. Gatot Subroto No. 58, Jak-Sel

상담방법 : 대면 및 통화

상담범위 : 기업법무, 투자컨설팅, M&A, 부동산, 저당권, 자원개발, 채권회수, 파산관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소송, 중재, 재단법인, 출입국관리법 등 법률문제 전반

상담자 : 이승민 변호사, 변리사, 파산관재사
(한인회 자문변호사)
HP> 0816.1911.245
Tel> 021.5296.0643
yisngmin@centrin.net.id

대사관,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1.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자문 서비스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 자문내용 :

- 인도네시아의 투자관련 법령, 제도
- 인니 상법, 노동법 등 기업 영업 관련 법률 문제

2. 상기 센터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당관 김호일 조사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21.520.1915

핸드폰 > 0811.183.3164

jkt_kimhoil@msn.com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 대폭 개선

대한항공이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를 발표했다.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는 ▲ 세계 항공 업계 최장 마일리지 유효기간 설정 ▲ 마일리지 사용 항공기 좌석 수 확대 ▲ 초과 수하물, 라운지 등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 가족 마일리지 합산 범위 대폭 확대 등으로 다양하다.

1. 마일리지 유효 기간 10년으로 확대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한 사용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연장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2008년 6월 30일 까지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다.

2. 마일리지 사용 좌석 확대

수요가 몰리는 성수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보너스 좌석을 상시 배정하고, 예약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더 많은 보너스 좌석을 최대한 추가 배정해 마일리지 사용을 더욱 쉽게 할 예정이다.

3. 초과 수하물, 라운지 등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항공, 호텔, 렌터카, 패키지투어상품 등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스템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초과 수하물, 공항 라운지, 리무진 버스 등에서도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 가족 마일리지 합산 범위 대폭 확대

가족 마일리지 합산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가족끼리 부족한 마일리지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지금까지는 회원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였지만,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까지 늘어나게 되어 소액의 마일리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보너스 항공권 유효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며, 고가 악기 운반 및 고객 편의를 위해 별도로 좌석을 추가 구매하는 경우에도 추가 좌석에 대한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2010.10.31일 부터 변경되는 대한항공 서울행 항공편 스케줄 안내입니다. Garuda Indonesia 와의 공동 운항편도 대한항공의 예약/발권 서비스는 그대로 받으시면서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카르타 - 서울]

편명	운항일	운항기간		출발		도착	
		FROM	TO				
KE628	매일	31-Oct-10	26-Mar-11	자카르타	21:55	서울	06:45*1
KE627	매일	31-Oct-10	26-Mar-11	서울	15:25	자카르타	20:30

[겨울 성수기 추가편] 변경될 수 있음

편명	운항일	운항기간		출발		도착	
		FROM	TO				
KE626	월,수,금	22-Nov-10	31-Dec-10	자카르타	23:45	서울	08:45*1
KE625	월,수,금	22-Nov-10	31-Dec-10	서울	17:10	자카르타	22:20

[덴파사르 - 서울]

편명	운항일	운항기간		출발		도착	
		FROM	TO				
KE630	일	31-Oct-10	31-Oct-10	덴파사르	02:20	서울	10:25
	월,일	01-Nov-10	21-Mar-11		03:35		11:30
	화수목금토	02-Nov-10	26-Mar-11		01:25		09:20
KE629	토일	31-Oct-10	26-Mar-11	서울	20:05	덴파사르	02:15*1
	월화수목금	01-Nov-10	25-Mar-11		17:55		00:05*1

재인도네시아한국부인회

회장/박미례(0811.895.360)

재인도네시아한국부인회는 1972년에 창설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대사관 공사 부인이 회장을 맡아 운영되다가 1982년 처음으로 민간에서 회장을 선출하였다.

초대 김정순 회장을 시작으로 전임 홍미숙 회장에 이르기까지 사회봉사 활동 및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전개하면서 재인도네시아한인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 2010년에 ‘후반기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신임회장단 선출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홍미숙 전 회장은 “2010년에는 K-POP Contest, 한국음식만들기 대회, 한국홍보책인 It’s Korea 제2권 발간 등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했다. 그동안 여러 분야의 활동에 함께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하다. “는 이임인사로 그간의 노고에 보답하는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2011년엔 제17대 박미례 회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된 임원단이 지난 활동에 이어서, 더 발전된 봉사/문화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한국인으로써의 위상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부인회의 활동으로 여러 분야를 지원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일에 주력하겠다는 신임 박미례 회장은 ‘어머니, 아내, 누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일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 회 장 박미례
- 부회장 박순화, 현병선, 정현옥, 이경희
- 총 무 이순재, 정정임, 김선명
- 회 계 오영란
- 서 기 정진경

☎ 연락처 박순화(0858.9059.0549)

재인니한인음악협회

회장/이일하(0815-1150-6664)

2005년 5월, 4명의 회원이 한국국제학교에 모여 창단한 음악협회가 현재는 18명의 우수한 인재들을 자랑하는 음악인 단체가 되었다. 음악을 전공한 회원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정기 연주회와 Primavera Concert를 통하여 인도네시아에 한국인의 음악성의 우수함을 알리고, 매년 개최하는 청소년음악회를 통하여 한국학생들의 음악적 욕구충족과 인재를 발굴하는데 활동목적을 둔 음악협회는 연주회의 장을 만들어 교민사회의 문화적 기반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2010년에는, (2년에 한번씩 열리는) Primavera Concert를 2월에 개최하였고, 5월에 제10회 청소년 음악회를 열었으며, 다양한 한인 행사에 빠질 수 없는 특별초정의 단골손님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1년에도 4월에 청소년음악회 오디션을 거쳐 5월에는 ‘청소년음악회’를, 10월에는 정기연주회를 개최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앞으로, 한인사회는 물론 인도네시아에서 훌륭한 공연 문화의 선구자가 되도록 노력 할 것이며 한인 학생들의 인재발굴에도 게으르지 않겠다는 음악협회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음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 입회 방법 및 자격 : 한국이나 외국에서나 4년제 정규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자로서 입회방법은 회원 회장이나 회원 누구를 통하여도 관계없고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시 될 수 있는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회원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회원자격 부여.

자필묵연

회장/도넬 제경중(0811-830-477)

〈자카르타에서 필묵으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의 모임〉 또는 〈필묵으로부터의 인연〉이라는 2003년 6월 3일 설립된 ‘자필묵연’은 우리의 전통예술을 통해 타국살이 행간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애환을 달래며, 나아가서는 현지에 한국문화 심기와 가꾸기, 2세들을 향한 우리문화 교육을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로 현재 60여 명의 회원이 인재 손인식 선생의 문하에서 서예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2010년에는 대한민국서예대전과 서울서예대전 등 굵직한 대회에서 수 명의 입상자를 냈으며, 제 6회 정기전 〈분주 속에 흠친 여유〉에는 31명의 회원이 74점을 출품하여 일가의 기량과 함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2011년도 한국의 공모전에 출품하고 현지 중국계 인도네시아 서예단체와 연합전, 제7회 정기전. 공모전 입상작을 수록한 2012년 카렌다 제작 등 야심찬 계획들로 분주하게 짜여져 있다.

◦입회방법 : 인재서당, 땅그랑, 찌부부르, 끌라빠가당 등 각 지회에 가입하면 준회원이 되며, 단 정회원은 일정기간 수련 후 자필묵연 정기전에 출품을 하여야 한다.

☎ 지도선생

인재 손인식(0815-9369-114)

라뮤즈 La Muse

지휘자/유지영(0813.9868.9802)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국 여성들로 구성된 Jakarta 여성합창단 La Muse는 지난 2002년 2월에 창단되었다. 이국땅에서, 한국여성의 멋을 하나 된 화음과 단합된 모습으로 정제시켜 보여줌으로써 한민족의 정서를 이끌어 가고, 다국적 민족사회에서 한국음악을 대표할 자부심과 꿈을 가꾸어 가고 있는 아름다운 여성들의 모임이다.

20명 정도의 회원이 있으며, 지난 2010년에는 제4회 정기연주, 한인회, 부인회, 대사관 초청연주, 문인협회 찬조 연주 등으로 분주한 한 해를 보내야 했으며, 한인 사회의 행사마다 출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내년 5월 또는 9월쯤 정기연주를 계획하고 있다.

☎ 행사 및 회원가입 문의

- 운영선(총무)0811-883-330,
- 김숙희(회계)0818-166-533

재인니한인문인협회

회장/한상재(081.1188.611)

재인니한인문인협회(회장 한상재)는 우리 교민사회에서 문화예술의 가교가 되고자 하는 뜻을 모아 지난 2010년 1월에 새롭게 출범한 순수문인단체이다. 현재 인니에서 방송이나 언론, 문화, 예술매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15명의 문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5월에 <문학과 음악으로 만나는 고향>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교민행사를 개최하여 교민들과 한마음으로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두 번째 행사는 <가을우체국 - 내 마음의 편지>라는 주제로 11월에 열렸는데 깊고 아름다운 가을의 추억 속으로 교민들을 초대하여 단풍처럼 붉게 물들었던 뜻깊은 행사였다.

재인니한인문인협회는 동인지 발간, 시낭송회,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예비문인 발굴을 위한 백일장, 창작교실 등 진취적이고 왕성한 창작활동과 외부행사를 통하여 교민사회에 친밀하게 다가가 따뜻한 문학적 정서를 함께 나눌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으로 문학공간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정진할 것이다.

☎ 행사 및 회원가입 문의

- 손은희 (0815-1902-4239)
- 서미숙 (0812-8178-050)

단체 연락처

라뮤즈(유지영)	0813-1443-7189
루시플라워(최정순)	0811-834-026
문협(한상재)	081-1188-612
문화탐방(신유희)	0818-708-228
미협(인치혁)	0813-1514-9978
사협(김희중)	0816-776-441
색소폰동우회(강희중)	0816-798-221
소리와 장단(박재현)	0815-875-0000
아름다운 나눔(강희중)	0816-798-221
월화차회(정연규)	0818-491-325
음악협회(이일하)	0815-1150-6664
인니어강좌(안선근)	0816-1883-224
자카르타 서예재단(손인식)	0815-936-9114
자카르타남성중창단(김원관)	0811-863-002
청소년음악회(김영희)	0818-0805-4871
코인(배정옥)	0812-8078-607
한국부인회(박미례)	0811-895-360
한바패(장방식)	0811-902-003
헤리티지(이청민)	0811-818-213

단체활동은 각자의 적성과 취향에 따라 성취도를 높여 주고 교민사회 화합에 동참하는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능동적이고 즐거운 생활의 한 방법이다.

인도웹(www.indoweb.org)에서 소그룹 활동을 할 수도 있다.

한인뉴스 독자 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매월 발행하고 있는 ‘한인뉴스’는 광고협찬사를 비롯하여 한인회 임원사, 운영위원사 등 100여 회사로 송달되고 한국계 은행과 병원, 교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행사 및 식당, 슈퍼마켓, 호텔 등에 일정 정도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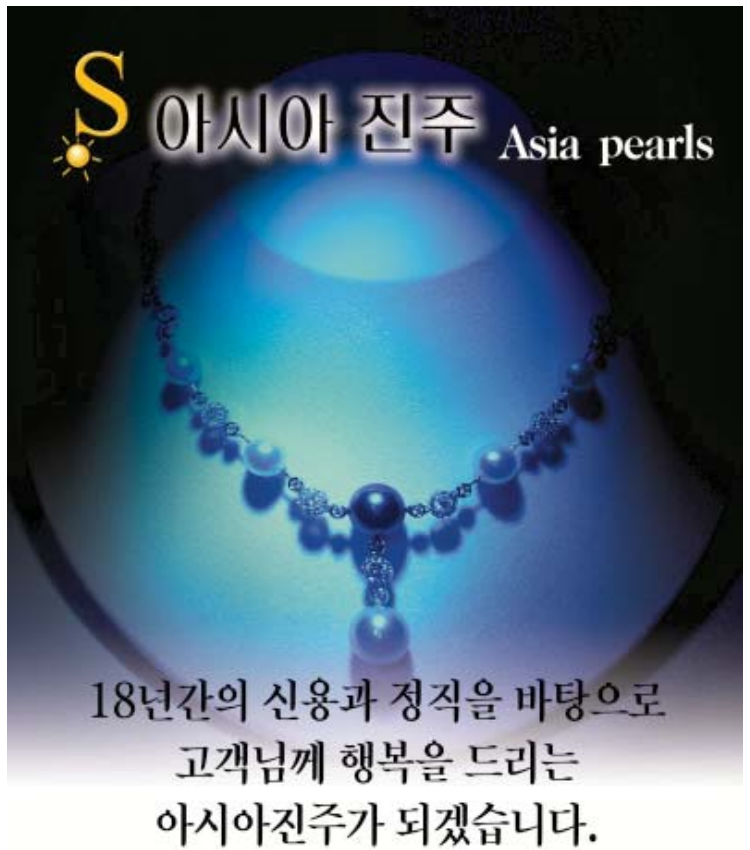
그밖에도 뉴질랜드, 중국, 일본, 미국, 스리랑카, 홍콩, 싱가포르, 칠레, 말레이시아 등 해외 한인회와 인도네시아 지방한인회인 동부자바한인회, 반둥한인회, 족자카르타한인회, 스마랑한인회, 메단한인회 등으로 상당수의 ‘한인뉴스’를 우편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한인뉴스’에 기고를 원하시는 회사나 단체, 개인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뉴스’는 한인회원 모두가 참여하여 소식과 정보를 나누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연락처 박정자(편집장)
haninnewsinni@gmail.com

대사관 입시청사

- 업무시작일 : 2010.7.26(월) 08:30부터
- 주소 : The Plaza Office Tower,
30th Floor(30층)
Jl.H.M. Thamrin Kav.28-30,
Jakarta Pusat 10350
- 대표전화 : 021) 2992-2500
- 대표팩스 : 021) 2992-3131
- 영사과 직통전화 : 021) 2992-3030
- 영사과 직통팩스 : 021) 2992-1700
- 당직직원 휴대전화 : 0811-852-446 (중전과 동일)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18년간의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고객님께 행복을 드리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정품 진주 진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배달가능)
- ◆ 최상품 다이아(GIA)판매 - 90% 환매 보장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체가공 가능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KT-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점(수출/무역)

Tel. 021-725-8857
HP. 0816-873-176 / 0816-1390-333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92 2500
영사과	2992 3030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 **긴급전화**

경찰 (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 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 한인회	5532 5555
반둥 한인회	022 200 6880
발리 한인회	0361 769 124
버카시 한인회(총무)	0811 847 556
보고르 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 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 한인회	0298 522 296
메단 한인회	061 453 8669
족자 한인회	0274 376 741
바뎀 한인회	0778 392 014
보고르 한인회	7782 886



**인도네시아가 보이는
리.얼.타.임.뉴.스**

데일리코리아는 유료정보입니다.

구독의 Tel 021-725-7447
 HP 0813-1898-9897
 dailykoreaindonesia@gmail.com

빨렘방 한인회
한국 부인회 526 087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2 807 8607

● **교민 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8983 1908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JIMS	744 4864

●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 스쿨(자카르타)	723 0807
(골라빠가당)	471 8047
(땅그랑)	558 7227

● **은행**

수출입 은행	525 7261
외환 은행	574 1030
우리 은행	515 1919
하나 은행	522 0120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 있는 교회	548 3044
늘푸른 교회	766 9191
동부 교회	4584 3458
연합 교회	720 5979
소망 교회	739 6487
순복음 교회	739 2373
안디옥 교회	765 3077
열린 교회	844 5537
위자야 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420 9134
주님의 교회	831 3843
잠빛 교회	720 0240
한마음 교회	739 5035
한인 성요셉 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

● **가주**

조지언 퍼니처	750 6109, 766 0364
---------	--------------------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

주거공간

↓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먼

Since 1994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 변호사 이소왕 배상 -



코리아센터 빌딩 4층(대사관 맞은편)
T 520-7153, 525-4523 F 521-2478 doowang@cbn.net.id

항공권·호텔·관광·비자

**로데미와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el: 4587 8833 Fax: 4586 5645
HP: 0812 967 8131
Email: rodem_tours@cbn.net.id
rodem_tours@yahoo.co.kr

**아이니 갤러리
INI gallery**



Telp. 021-5814590 / 021-98202086
0812 19285578 / 085217731003
email : ineepark@indosat.net

가구 furniture
Neo-classic Antique, European Life style,
Modern & Minimalist, Italian Black gold & white.

interior 인테리어
Home, Office, Apartment, Commercial, Villa, Remodeling.

**컷 - 머니
MONEY CHANGER**
(허가번호 NO.9/49/KEP.GBI/DPM/2007)

100% 환전 송금

- 3시이후 서비스가능
- 토 · 일요일 서비스가능
- 배달 서비스가능

SUDIRMAN PLAZA
Jl. Jend. Sudirman B1
Tel. : (021) 5793-9990. 6840-1
직통 : 0878-8777-0111

●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 건강원	7028	4262
고려 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0
한국 건강원	5579	6411
황소 건강원	5576	7628
진영 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 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 황성주 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6	142 5099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 꽃집	0816	733 810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 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 렌트카	6870	9335
우리 렌트카	081	119 3069
한성 렌트카	889	0471
짱구 기사 클럽	7279	8233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 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 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 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 밀레니움	7082	0056
리츠 부동산	6896	7249

●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KEMBAR REJEKI	527	2245

●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준 한의원	722	7745
길명근 한의원	722	4646
뉴 월드 메디칼	7279	3809
대한 치과	721	1850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 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솔 한의원	7278	7410
신동씨 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한국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땅그랑)	546	0055
R.S. Siloam(찌까랑)	8990	1911

●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	-----	------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가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골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가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세노파티)	5289	7044
가호(골라빠가딩)	2850	7600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생활정보

뉴 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 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돌아온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또래오래 치킨(버까시)	8243	4848
레드토마토 EX몰	315	1033
뿐독인다	7592	0654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 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까시 서울(버까시)	8895	7604
부산횃집(골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산티카 클래식(버까시)	8459	9282
상륙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 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 팔레스	(024) 447	414
소양강(찌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골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보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골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7082	06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보찌까랑)	8990	1662
아리아 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 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오장동 오스시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터(골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안 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안 하우스(반등)	(022) 203	1626
코리안하우스 횃집	844	5877
타임(가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Korean Traditional Grill

고주몽

7279-6709

Jl. Panglima Polim IX No.7-9 Jakarta Selatan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골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보찌까랑)	8990	6230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골라빠가딩)	453	3033
한술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골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BBQ(골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 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0	9107
일요신문	452	5655
타임 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 여행사

가루다 오리엔트 홀리데이	7278	0856
굿데이 투어	4586	0598
그린 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	603	9274
솔로몬 투어	0813	1934
싱가폴투어(비자)	574	2660
스카이 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 트래블	230	3116
코인 관광	720	7230
하나 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탐)	0778	462

•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 갤러리	581	4690

• 운송 해운 이삿짐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트랜스 우파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5	1628
	5296-0024	

FN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520 4189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6531 1123

●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 갤러리	581 4690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증권/보험**

동서 증권	526 1326
삼성 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 증권	797 6210
클레몽 종합금융	797 6363
한진코린도 보험	797 5959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브찌까랑)	8990 0088
두양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 컴퓨터	725 1606
멀티캡 컴퓨터	5579 0305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www.indoweb.org	
Reading Revolution	722 0833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CITRA	781 7771

● **하숙집**

쉼터 하숙	726 8775
일박이일 하숙집	424 0953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뽀독인다	0818 760 747

● **학원/교육업**

대교 인도네시아	5292 0911
다니엘 아카데미	722 0686
리 앤 리	725 5008
마인드케어 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 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 논술	4586 7844
뽀독 인다 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 아트스쿨(리브찌까와찌)	546 4531

예 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 학원	7279 1020
토마토 미술	720 5194
피카소 어린이 미술학원	725 5757
하이스트 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 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 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 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 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 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 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 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 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 신암	797 6105
참피온 머니체인저	453 0172
환전	712 8556

● **골프샵**

교민 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 골프샵	546 0838
레네 세계골프	739 8312
한양(끌라빠가징)	450 4364
EFC Golf	725 0057
훈마 플레이골프	344 2540
MFS 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 골프	570 3063
배준원 골프교실	781 7679

● **기타**

꽃과 좋은날	0811 941 17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발리 (지역번호 0361)

●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384-2283
--------	---------------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

● **슈퍼**

한국슈퍼마켓	281 929
--------	---------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 **식당**

그릴하우스	754 100
꼬끼 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 라운지	759 368

●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佳肴는 1958년 부터 시작해온 양·대창 전문점으로 **맛좋은 안주**라는 뜻입니다.

예약 : (021)5289-7044

Jl. Jend. Sudirman Kav. 52-53 Lot. 6 Jak-Sel

-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AVENUE	761 313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반동 (지역번호 022)

• **식당**

뉴캐슬 식당	201 5007~8
명가 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 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 사우나	201 5007~8
반동 렌트카	0813 9400 9981
반동 한인부동산	0858 6130 8882
인니어번역 (Mrs. Lee)	021-743 2687 021-9432 2102



Lim Tailor

40년 전통!! 최고의 기술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마춤양복 · 예복
바틱 · 와이셔츠 · 회사유니폼

유니폼! 회사의 얼굴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단체복을 맞춰드립니다

다양한 디자인의 바틱!!
두 벌 맞추시면 한 벌을 더 해드립니다.

전화 주시면 인도네시아 어디나 찾아가 맞춰드립니다.
0811.187.3382 // 0815.1059.0827
<http://limtailor.indoweb.org>





새해에 뜨는 해는
당신의 큰 뜻입니다.

새해에 부는 바람은
당신의 힘찬 기운입니다.

새해에는 당신의 노래가
세상에서 가장 큰 울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PT. Bosaeng Jaya



PT. KENLEE INDONESIA



PROJECT/CONSTRUCTION
MANAGEMENT & DEVELOPMENT
CONSULTANTS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건강과 행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새해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SAMINDO
ELECTRONICS

Unicorn®
PT. UNICON INDO MESIN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Dongsung
JDS 

PT. ST  R FASHION UNGARAN 

PT. ST  R CAMTEX 

 **PT. HANINDO EXPRESS UTAMA**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DCBJ



PT. PAN BROTHERS TBK



TRIKARYA ALAM GROUP





더 행복한 일을 만드는
더 아름다운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PT.BUSANA PRIMA GLOBAL (BPG)

We Want to be one of the Best Garment Factory in the World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칙과 신뢰를 회사경영의 기본으로 여기며 고객과 협력업체 모두에게 신뢰 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T.BUSANA PRIMA GLOBAL

Jl. Mercedes Benz No.223A, Cicadas, Gunung Putri, Bogor - Indonesia 16964
Phone : (62-21) 8676110 (Hunting), Fax : (62-21) 8676115,8676116
Website : <http://www.bpg.co.id>, Email : busana@bpg.co.id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KIDECO는 여러분과 함께 초록세상을 가꾸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에너지 자원회사

PT. KIDECO JAYA AGUNG



祝
謹 賀 新 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경승 가족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업!
 在 인도네시아 교민 사회에 봉사하는 기업!
 정직하고 우수한 기업을 위하여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군부대 용무도 후원사로서
 용무도 발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2011年 新年 경승 가족 一同



<주> 경 승 한국본사

- PT. UNI KYUNGSEUNG INTERNATIONAL
- PT. KYUNGSEUNG TRADING INDONESIA
- PT. KYUNGSEUNG GLOBAL
- PT. GUNUNG ABADI
- PT. TIGA KYUNGSEUNG GARMEN





HYUNDAI Truck

Yang Memberikan Keuntungan Ini Bagi Anda!

- Untung!** Karena irit bahan bakar
- Untung!** Karena tak pernah rusak
- Untung!** Karena dapat perawatan di manapun



HYUNDAI
Truck & Bus

Hyundai, Official Partner of 2010 FIFA World Cup™

HYUNDAI